

7기 한총련 출범식 성사 지난 29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28일 아침 10시경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한총련(의장=윤기진·명지대학교총학생회장) 소속 학생들이 속속 모여 들기 시작했다.

이행 행사는 본래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원천봉쇄로 인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들어 오자 경찰측은 곧바로 경희대학교를 원천봉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총련측은 경희대학교에 들어온 뒤 대오를 정비하고 오후 1시,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앞에서 윤기진 한총련 의장과 이성희 한총련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8시경 힘다지기 행사에 이어 자부별 결의대회를 갖고 한총련 출범식 개막제가 진행됐다.

29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인 한총련은 오전 10시 20분경 강희남 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인사들과 윤기진 한총련 의장, 민권공대위 박해천 집행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2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식 장소인 경희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정부를 비난한 뒤 △불심검문 중단 △병력 철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또, 윤기진 한총련 의장은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어 한총련 특별기구인 학

원자추진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위)와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출범식이 있었다.

학자추위 출범식에서 7기 위원장을 맡은 이준학군(경상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 민영화, 대학원 중심대학, 대학 구조조정, 학부제, 무전공 입학제 등으로 우리의 대학은 황폐해지고 미국식 대학으로 바뀌고 있다"고 규탄하며 "민족의 백년지대계를 팔아먹은 김대중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2시경 10기 조총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동진(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 조총위위원장은 "민족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의 길 이 아니다. 그동안 투쟁을 통해 김대중정권과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7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통일의 결의를 드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부터 한총련 출범식이 진행되었는데 4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출범식에서 윤기진 한총련 의장은 △전대협을 뒤를 잇는 한총련은 정당한 청년학생들의 조직이다 △99년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의 본격적 역사를 개척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자 △민중의 가슴에 김대중정권 퇴진, 지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격령을 일으키자 △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자 △거세찬 99년의 향연으로 미국과 김대중정권에 철추를 내리고 식민지 이땅에 자주·민주·통일의 밝은 여명을 거머쥐어 앞당겨 오자는 내용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쳤다. 사회부

행정조직개편안 이사회 승인

급속한 환경 변화 적응위한 효율적 조직개편 추구 한달간 의견수렴 거친 뒤 보완 ... 빠르면 7월부터 시행

97년 9월부터 본교의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인 행정조직개편정안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6편

지난 27일 열린 법인이사회에서 승인된 이번 행정조직개편정안은 기존의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등의 6개 부서로, 경주캠퍼스는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처 등의 4개 부서로 개편된다. 특히 경주캠퍼스는 기획처가 신설됨으로써 독립적인 예산의 집행과 인사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치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별 전담기구로 정보기획단,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사업단, 교육개혁 추진단, 과학기술진흥기회단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대학환경

의 급격한 변화와 양적 팽창위주의 타율적 경영, 중앙집중과 전통적 계층형태로 다단계·과분화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문제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와 자연상승보수체제로 인한 현실안주의 행정조직을 △21세기 대비 능동적인 대응체제의 구축 △질적 내실화를 위한 자율적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연구, 학생복지를 최우선하는 행정서비스 △팀제의 도입과 업무과정의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계획,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쟁력 고양과 능력과 업적 중시의 차별적 보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책기획과 경영활동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부총장 및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강화 △대학(원)장 책임 및 권한 강화 △학사지원업무의 기획성 기능은 캠퍼스별 중앙지원체제로 재편

△학술정보 종합전산화 및 일원화된 중앙지원체계 구축 △일부 부속기관의 폐지 △팀제의 도입 등에 주요점이 맞춰졌으며 △업무효율화 추진 및 대학 개혁기반 조성 △탄력적인 인력 운용효과 △효율적인 행정공간 조정 △인력재배치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그결과 총장직속으로는 기존의 기획팀과 예산조정과, 교무과 등의 기능을 통합한 기획인사처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와 공보실, 구매과와 일부 기능이 통합된 대외협력처가 신설돼 각각 장기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일괄된 체계를 갖출 수 있고 또한 대외업무가 일원화되면서 발전기금의 모금과 학교의 지속적 인흥보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경주 캠퍼스의 나머지 부처는 부총장 직속으로 개편되면서 부총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팀제와 연봉제, 기관 업무평가제의 도입으로 보인다. 인사반영에 있어 기존에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연공서열을 파괴, 능력과 경쟁위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학내 부처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후속보완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들은 학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경주캠퍼스 신임 부총장에 최규철 교수 임명

경주 캠퍼스 부총장에 최규철(사회체육학) 교수가 임명됐다. 전임 김갑주 부총장에 이어 새로 부임하는 신임 최부총장은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최규철 부총장

야구부 3년만에 대학무대 제패 춘계리그 결승서 흥익대 제압

96년 이후 3년만에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전국대학춘계리그에서 우승, 운동장을 찾은 동국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지난 28일 흥익대를 상대로 결승전에 일한 본교의 타선은 1회초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다. 클린업 트리오프로 나선 3번 박한이(경영3), 4번 정원석(체육4), 5번 강재두(법2)의 연속 안타로 3점을 선취, 끝까지 홈런을 보인 박한이는 5회초,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보태 5대 0으로 달아났

다. 이어 6회초, 다시 볼넷과 박한이의 기습번트로 2점을 뺏고 이어 4번 정원석이 3점홈런을 날려 11대0으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지만 선발 윤호석(경영2)의 구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구원 투수로 나선 3명의 투수도 이를 막지 못해 한꺼번에 5점을 내주며 투수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시 위기를 맞은 9회말, 상대 팀 윤현식의 홈런과 이어진 안타로 2점을 내주었으나 서승화(법

2) 투수가 1사만 투상황에서 침착함을 발휘, 나머지 2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결국, 본교는 12대8로 승리, 전국대학춘계리그 우승컵을 안게 됐다.

이번 대회 우승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한대화(체육83졸) 감독, 우승후, "앞으로 동대를 최정상 야구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로 우승 소감을



대회 우승후 선수들이 한대화감독을 행개례하고 있다.

대신한 그는 본교 야구부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 초 본교 야구부의 중심타자로 팀을 이끌었으며 프로출신 대학감독 1호이기도 하다. 한편 정원석 선수는 최우수선수상, 최다홈런상, 타점상 등 무려 3개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다.

a“오월, 젊은 만해를 꿈꾼다”

지난 29일 본사 주최 백일장 열려

본사 주최 제37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지난 29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은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천5백여명이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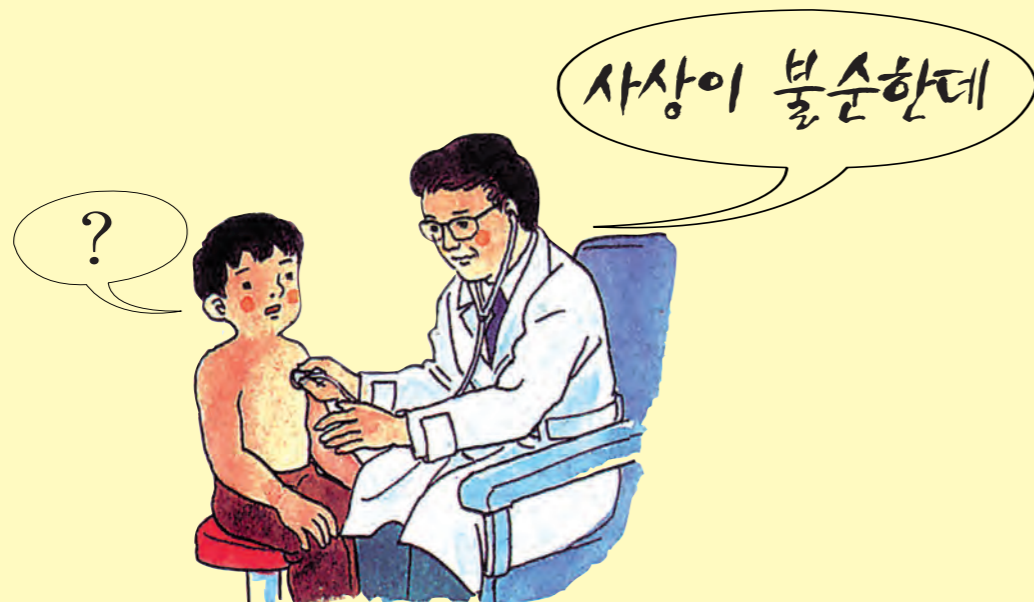
뤄진 예산에서 임상한 고교생 약 3백50여명이 참가해 시, 소설, 수필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시=신경림, 문정희, 홍신선 △소설=김

주영, 한용환, 이원규 △수필=홍기삼, 정재봉, 양영진 교수가 맡았다.

심사결과 시부문에서는 염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설희, 소설부문에서 대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소영, 수필부문에서 가락고등학교 3학년 강예진양이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알	림
이번 제1275호가 99학년도 1학기 총강호입니다. 그동안 성원 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문은 오는 8월 30일자로 발행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지금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기준으로 볼때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범제로 국가보안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학생과 노동자등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싹까지 뽑아 버리려는 국가보안법 이젠 사양합니다.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공부는 즐거워 1학기 중강이 코앞에 다가왔다. 서서히 기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각자의 진지함 속에서 연인과의 통화는 즐거운 것일까? 촬영= 송광수 동문

지면안내	
본사주최 백일장 당선작 게재	7~9면
국가보안법대토론회 지상중계	4면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하여	6면
신나는 여름, 여행을 떠나자	11면

크게 한 번 죽어라(大死一番)!

정성본(불교대 불교학부) 알렉산드르 듀머의 '몬테크리스트 백작' 마지막 부근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와의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지극히 크나큰 불행은 경험한 사람만이 지극히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막시미리안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쯤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와 남을 비교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나 명예나 부귀 등을 몽땅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기본래의 모습으로 삶의 의미를 자각해야 한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한번 크게 죽은 뒤에야 자신의 참된 존재와 삶의 의미를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에서는 대사일번(大死一番)이라고 한다. 종교적인 진리는 육체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모두 없애 버린 그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진정한 수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의식을 잊어 버리고 어려운 환경과 난관을 극복해야 자기 향상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황백선사는 "반뇌를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 잡념을 한데 묶어 한바탕 씨름해 보라. 뼈골에 사무치는 차디찬 추위를 한차례 겪지 않고선 어찌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맛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읊고 있다. 우리들이 주어진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매사를 극복하는데 자기 향상과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법이다. 우리 인간 세계에 대소사를 막론하고 어떤일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한다. 안일함과 내내의 자기 과멸이며 인위 발전의 적이다. 우리들이 절대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보람찬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고,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자존심과 지위와 야만과 권위를 몽땅 떨쳐 버리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진실로 행복하고 충만된 자신의 삶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대의원 총회서 총학생회칙 개정안 통과

학부·계열·전공 학생회 공식인정 ... 향후 모집단위 따라 조정될 수도

대의원총회-회칙개정

99학년도 상반기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7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총대의원회(의장=최진범·영문4) 주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총대의원 재적인원 2백40명 중 1/3이상인 1백2명의 출석으로 성사됐다.

이번 총회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된 총학생회칙 개정문을 중심으로 △새터부정기 감사 △3월 선거결과 △특정학과 등의 상반기 사업보고 등에 대한 논의·의결로 진행됐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새터에 대한 새터부정기 감사는 학생회 사업을 올바르게 평가·비판함으로써 학생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3월 선거는 매번 후보 미등록 및 투표율 저조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많은 학

생들의 참여와 지지로 학생회가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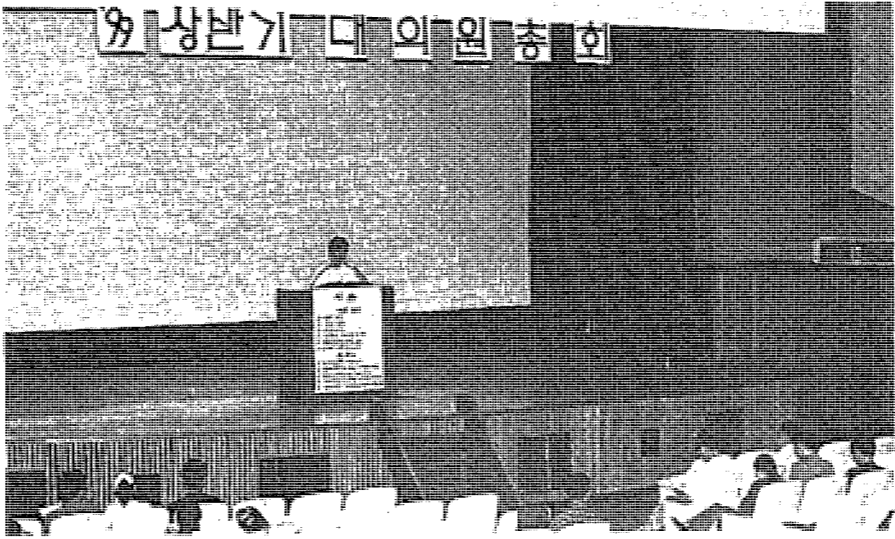
특히 학부제 시행후 생겨난 학부 학생회와 계열학생회 등의 기초단위 학생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자 시행된 회칙개정안은 전공학생회, 계열학생회, 학부학생회를 정식으로 총학생회의 구성으로 인정하고 아울러 학부제 시행으로 생겨난 각 대표들에게 대의원의 권한을 주며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반대표, 학년대표, 전공대표 △학생대표 =전공학생회장, 학부학생회장, 계열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등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80학년도 제정된 이래 7차 개정된 것으로 총학생회의 2/3이상인 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난 27일 총회를 기점으로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

회칙개정

이번 회칙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기존의 학과 통합합 등으로 혼란에 빠진 학생회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부제 시행으로 생겨난 새 대표자들과 학생회 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칙에서 학부학생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학부제반대표를 벌이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진범 총대의원회장은 "생자재의 경우 학부학생회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올바른 학



지난 27일 중강당에서 이과대 김기만 대의원장의 사회로 대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이 학부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회칙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각 단과

대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통과된 이번 회칙은 이후에도 학생회 체계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영민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정보문화관·상록원 준공식 시행

송석구 총장 등에 공로패 수여

본교 정보문화관·상록원 준공식이 지난 27일 12시 정보문화관 앞에서 개최됐다.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오복원 이사장, 황명수 명예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오복원 이사장은 송석구 총장과 정상영 금강고려회회 대표 등 시공에 기여한 여러사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보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각종 증명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과 역경원 및 정보산업대학이 들어서며 상록원은 1·2층 학생식당과 3층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오복원 이사장은 차사에서 "상록원은 말 뜻 그대로 늘 학생들이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대출기간 연장 제도 폐지

오는 1일부터 ... 연체료 부과 선택제도 시행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출기간 연장 및 연기제도를 폐지하고, 연체료 부과 선택제도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존 5책 10일 대출제도에 대출기간은 14일로 늘어난다. 연체료는 대출종지 기일이 30일 이상인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 한해서 대출종지나 연체료 부과 중 본인이 선택하며, 1권당 1일 연체시 1백원으로 부과된다.

한편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4층 제3열람실을 철야 개방한다. 이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실시되며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도서관 중앙 현관문은 폐쇄된다.

본교 국고보조금 19억3천5백만원

지난해 25억6천2백만원보다 24.5% 감소

99학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본교 지원액이 발표됐다. 이번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다양화·특성화 기반조성-3억6천5백만원, △시설·설비 확충지원-10억9천만원, △도서관 지원-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25억6천2백만원보다 24.5% 감소한 총 19억3천5백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조정과 김준호 과장은 "99학년도 교육부의 사립대학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25% 감소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담스님 목조보살입상 기증

조선시대 불상조각연구 자료로 이용

경북 유흥정사의 장해담스님이 지난 25일 목조보살입상을 본교 박물관(관장=장종식·미술사학)에 기증했다. 조선시대(1620년) 무물인 이 불상은 높이 93.7cm, 안폭 14.8cm, 견폭 20.5cm로 조각이 수려하며 개성이 잘 나타나고 평가된다. 이 보살상은 기증자인 해담스님이 오랫동안 소장하며 예뻐하던 것으로 손상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조선시대 불상조각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로 알려지고 있다.

구준서 전 총학생회장 연행

6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혐의로

본교 98학년도 총학생회 회장을 역임한 구준서(정치공4)씨가 지난 28일 새벽 강원도 홍천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 연행됐다. 98년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서남총련) 임시집사로 활동했던 구준서씨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속에서도 학생운동의 단결·혁신을 주장하며 활동해왔다. 이에 총학생회는 28일 불심검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김홍중 총학생회장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받는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총여, 거리홍보전 개최 ... 오늘부터 불상앞 등에서 3일간

총여학생회(회장=서진경화·철학4)는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불상앞과 통일광장에서 반성폭력 거리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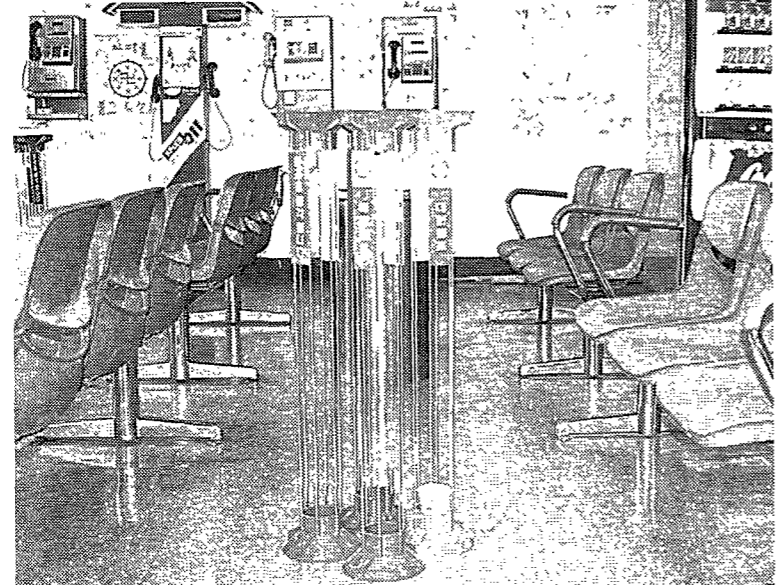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짜증나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하여",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여성노동자", "같은 여성으로 만나기" 등의 네가지 테마로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전시한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작된 미인대회를 마비시키고 거울전시를 통해 폭로하고, 지난 15일에 열린 안티미인대회 사진을 구해 전

시한다. 또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해 대자보와 자체 제작한 민화, 정신대 할머니의 열서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총여학생회

의 한 관계자는 "하더라도 더 이상 성폭력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모아주세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펼치고 있는 '동락터잡기 운동'의 일환인 '종이책 재활용'을 위해 학내 곳곳에 종이책 수거대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해 최진범 총대의원회장은 "생자재의 경우 학부학생회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올바른 학

학제개편 본격적으로 시작

경제학과 등 일부학과 소속변경 추진중

본교 2000학년도 신입생모집이 공역화됨에 따라 각 구성원단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교 구조조정 일환 학사구조조정으로 몇 개 학과의 단위가동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다.

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종진·사학4)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명진관 앞에서 '일방적인 학제개편 반대'를 위한 전략 농성'을 벌였다.

오종진 비대위원장은 "교과와 공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학장님과의 면담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한 관계자는 "학사구조조정은 각 단과대학 학장과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해 학교당국과 학생 사이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학과, 식품공학과, 응용생물학과가 각각 사회과학

대, 생명자원과학대, 이과대로 이전되는 등 몇 개 학과의 단위가동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길 기획조정실장은 "정치·경제·사회가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인데 경제학과가 경상대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나머지 학과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식산문제 해결과 학부제 반대를 위한 일관 전진대회'에 각 단과대 학생 약 50여명이 모여 모집단위 광역화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정산대의 한 학생은 "정산대는 매년 모집단위가 바뀌었다"며 "이는 학부제를 졸속으로 시행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선진 총학생회 회원이자주부 부장위원장은 "학생들은 학부제의 실행 대상이 아니며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해 시행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고수동정

▲임기중(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은 '21세기와 국어국문학'이라는 주제로 5월 29·30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개최.

하계방학 사회봉사 단원모집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의 진실한 눈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9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99. 6. 7(월) ~ 6. 18(금)
- 봉사활동 기간 : 99. 6. 21(월) ~ 99. 8. 31(화)
「기간 중 33시간」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
(학생처 장학과 내 ☎ 2260-3050)
-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50여개 단체
(봉사활동내용 : 300여개 프로그램)
-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33시간 이상 1학점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단위 기간별 2학점까지 인정함.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담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하계방학 해외봉사 단원모집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9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중 해외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목적 :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발 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봉사 의식 고취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 신청 자격 : 재학생
- 선발 기준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가 우선
"농촌봉사(농업기술), 한글, 컴퓨터, 태권도, 노력봉사 등" 나.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다. 봉사활동 경력자 및 농촌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우대
라. 어학 능력자(중국어, 영어) 우대
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과점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선발 인원 : 19명
- 봉사 기간 : 99. 7. 22 ~ 8. 4(기간 중 2주)
- 봉사 지역 : 중국 요령성 심양
- 봉사활동 내용 : 농촌봉사(농업기술),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노력봉사 등
- 소요경비 : 학생 부담 : 1인당 40만원(기타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봉사단 소정 양식)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장학과 : 본관 2층)
11. 신청기한 : 99. 6. 1(화) ~ 99. 6. 11(금)
(※ 위 계획은 봉사 지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문의 바람. 문의 ☎ 2260-3050

99학년도 후기 대학원 일반전형

-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과별 학과명

과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	철학, 선, 인도학, 국어국문, 영어영문, 일어일문, 한문(경주), 사, 미술사, 불, 국어언어,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정보, 정보보호, 농업경제, 지리	철학, 선, 인도학,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 미술사, 불, 국어언어,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자연 과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환경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측(경주), 기계공, 안전공학(경주),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환경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의약계	한의학(경주), 의(경주)	한의학(경주), 의(경주)
특수학	멀티미디어(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연극영화), 어시시(제약)공, 선, 인도학, 영어영문, 불, 정치, 경제, 무역, 지리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 석사과정 화, 응용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개설된 학과임.
※ 석, 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한외, 의외과는 제외)

 - 지원 자격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 지원서 교부 : 99. 6. 1(화) ~ 6. 10(목)
 - 지원서 접수 : 99. 6. 9(수) ~ 6. 10(목)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7시이후는 본교 학습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 전형일시 : 99. 6. 18(금) 10:00

입시안내 인터넷주소 : http://dgucc.dongguk.ac.kr
E-mail : anny@cakra.dongguk.ac.kr, bskkk@cakra.dongguk.ac.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학원 교학부 ☎ 2260-3090~5, Fax 2260-3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99학년도 하계 자비 영어연수 시행

- 99학년도 하계 자비에 의한 영어연수 시행에 따른 희망자별 아래와 같이 모집함.
- 연수기간 : 99. 7. 6 ~ 8. 13(6주)
- 연수기관 : 미국 메인대학(UNIV of Maine)
- 연수인원 : 제한없음
- 연수내용 :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연수
- 연수경비
가. 기본경비
1) 등록비 : \$100 2) 수업료 : \$1,310 3) 숙식비 : \$1,178
나. 기타경비
1) 숙박항공료 2) 과일화빙비(주말여행경비 포함) \$195
3) 기타 개인준비금 : \$450
- 특정 : 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 8학점
-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단, 99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류
가. 해외 대학원 입학신청서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입학신청서(신청양식) 1부
- 신청기간 : 99. 5. 31(금) ~ 6. 4(금)
- 신청장소 : 연구교류처 학술교류팀(☎ 2260-3876)
- 주최사항 :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 99. 6. 11(금)까지 여권을 발급받을 것.

연구교류처

낙산학사 개장

- 개장기간 및 일정 : 99. 7. 1(목) ~ 8. 18(수)
 - 신청서 접수기간 : 99. 6. 15(화) ~ 6. 17(목)
 - 실배정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음.
 - 접수처, 사용관리비 및 폐점배정 배정 내역
- | 실배 | 신청 | 구분 |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
|----------|------------------|--------|-----------------|-----------------|-----------------|-----------------|
| 사물 | 20명 | 1부 | 7월 1일 ~ 7월 4일 | 2부 | 7월 25일 ~ 7월 28일 | |
| 기타(사용인원) | 39명 | 2부 | 7월 4일 ~ 7월 7일 | 3부 | 7월 28일 ~ 7월 31일 | |
| 사용관리비 | ₩1,500 / 1일 | 3부 | 7월 7일 ~ 7월 10일 | 4부 | 7월 31일 ~ 8월 3일 | |
| | (예약금 ₩10,000/1일) | 4부 | 7월 10일 ~ 7월 13일 | 5부 | 8월 3일 ~ 8월 6일 | |
| 점배정 | 사물 | 경주 | 5부 | 7월 13일 ~ 7월 16일 | 6부 | 8월 6일 ~ 8월 9일 |
| | 2부 | 6부 | 7월 16일 ~ 7월 19일 | 7부 | 8월 9일 ~ 8월 12일 | |
| 접수처 | 학생실 | 학생실 | 7부 | 7월 19일 ~ 7월 22일 | 8부 | 8월 12일 ~ 8월 15일 |
| | 2260-3047 | 7부-208 | 8부 | 7월 22일 ~ 7월 25일 | 9부 | 8월 15일 ~ 8월 18일 |

-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타교생 사용불가) 및 교직원 직위 외의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나) 실 배정은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다) 학생실의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관리비 및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취소시도는 개인별 지참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관계과(2260-3081)나 학생과(2260-3017)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처

임석대동제, “다채로운 행사 치러져”

여성·저항 문화제 ... 학생참여 부족, 아쉬움

지난 25일부터 4일간 교내 일대에서 치러진 99임석대동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이었던 점에 그 출발부터가 예년의 온방골 대동제 풍속도와 달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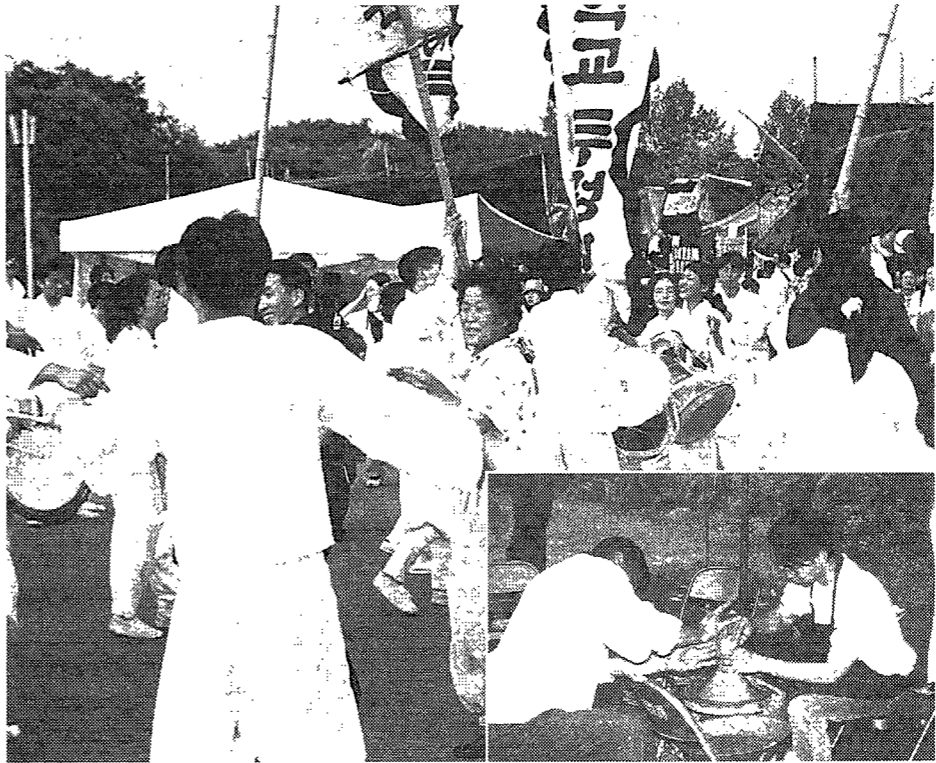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모순과 여성의 차별적이고 성적폭행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 반해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25일 막을 올린 99저항문화제의 경우 이번 대동제의 기치에 어울린 문화공연이었다. 또한 이번 대동제는 본교 락그룹인 바라밀 공연과 함께 부산대의 해모스, 영남대의 에코스 등의 전국 대학단위의 락페스티벌은 젊음의 열기를 한 곳으로 모았

다. 특히 본교 사물놀이 동아리인 탈패를 비롯해 경주대의 두령쇠, 위덕대의 하늘소리 등의 웃다리 사물놀이, 차산농악 공연은 구경나온 지역주민들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전형적인 대동제 마당인 맥주빨리 마시기, 동국 최강의 커피, 게임경진대회 등은 대학내 소외돼 가는 대동제문화에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다. 이처럼 99임석대동제가 과거의 대동제와는 뚜렷한 성격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했다.

그러나 축제기간중에 대운동장 및 주차 지정장소를 제외하고는 교내일대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어도

불구하고 버섯이 주마거리를 확보하는 차량과 교내 중간중간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축제기간내내 언제나 녹야원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락공연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는 물론 기타 강의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조차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축제와 관련해 졸업을 앞둔 상경대학 학생은 “밤이면 주막·분식거리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차 있으며, 사실상 이용후의 비위생적인 뒷처리문제도 예년에 비해 덜해진 것 같다”며 “결국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채워지는 축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대동제는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저항 문화제 등의 마당은 정작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상섭(불교4)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동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것처럼 16대 총학생회 구성원들과 얼마만큼의 하나됨이



지난 대동제 기간 경주 포항지역 대학연합 풍물패의 공연과 도자기 빚기 등 다양한 행사가 교내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이에 동참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모습.

희전무대

가시리

○...도적떼들의 한판잔치(?) 무슨 말이고 하니, 지난 경주캠 대동제 기간 중 도적떼들이 대낮 도적떼로부터 기습을 당했다는 데. 내용인 즉, 대동제 준비로 인해 학생들이 동아리방을 비운 틈을 타 누군가가 학생들의 현금과 각종 소지품들을 흔적도 없이 가져가 버렸다고. 이로 인해 소지품을 도둑맞은 학생들은 축제의 즐거움보다 분노의 치를 떨 수 밖에 없었다하니. 이에 도둑맞은 학생 왈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리는 것더 살라하고 빈 지갑만 버리고 가시리 있고!”

오랏 차(?) 차(?) 차(?)

○...축제기간 중 교내에 진입할 수 없는 일반차량들이 이를 무시한 채 온방골내를 활개쳤다. 알아보니, 학내 차량진입금지를 무시하는 일부 몰지각한 차량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다가 하면, 차들을 통제해야 할 주체들마저 비좁은 학내에 차를 세워두기까지 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 구절 읊조리니, “경자~ 경자~ 축제만은 차(車)들을 버리자. 타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이별한 열정

○...“의지의 한국인!?” 지난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99전국총계대학리그전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의 사나이들이 있었다. 열띤 경기중 흥분한 세명의 학생이 전광판 앞 난간으로 뛰어올라가 보이는 이들의 마음을 아슬아슬하게 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간헐증가에 오른 박영석씨도 그대들에겐 못담하겠군.”

만해광장 = 주차장(?)

○...만해광장메뉴의 다양화! 학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내 유익한 농구코트인 만해광장이 요즘 봄살을 앓고 있는데. 농구장으로 진가를 발휘하기도 전에 주차장 짝까지 겸임, 때마침 물어발식(?) 이용이라고.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도 학생들의 열기에 물을 끼얹는 듯한 행위는 삼가야 하지 않을까. 이에 농구하던 한 학생 왈, “리바운드 할때마다 차가 나를 마크하고, 패스할때마다 차다칠까 걱정되네.”

총대, 오는 3일 정기총회 개최

회칙, 학생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정돼야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 이하 총대)는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가진다.

안건은 △99년도 1/4분기 감사발표 △학생회 회칙개정 △단체 및 자치기구 예산안 승인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해 의장은 “대의원 소집을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이나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할때 임시총회 형태로 안전 보고단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장 총칙 제 8조-(대학발전협의회)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본 회의 각 자치기구는 학교 당국과 학생 자치활동, 학생권익,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회의의 정제,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련된 학칙개정, 기타 본 회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협조, 조정할 수 있다.

△제 4장 중앙운영위 제 29조-10. 대의원의회의 결의 사항 중 의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단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9장 단과대 대의원회제48조(업무 및 권한)-3.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등이다.

이와 같은 회칙 개정안을 살펴 보았을 때 이는 중운위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대의 정기총회를 통한 회칙개정이 학생회 내부의 중요사안인 만큼 논의없이 그냥 통과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내달 23일, 고시장학생 선발

고시지도위원회(위원장=김선정·법학)는 99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고사를 다음달 23일 오전 9시 30분 B(진흥관)302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자적은 본교 재학생 또는 99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법정대 교과과에서 원서를 접수 받는다.

선발고사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1학년=사법시험반(외국어, 민중) 공인회계사반(영어, 경제학) △2학년=사법시험반(영어, 민중, 헌법) 공인회계사반(영어, 경제학, 상법, 회계원리) △3학년=사법시험반(외국어, 헌법, 민법, 형법) 공인회계사반(영어, 경제학, 상법, 회계

의 환관잔치'가 대동제에 참여한 구성원들과 얼마만큼의 하나됨이 있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원리1, 2) △4학년=사법시험반(3학년과 동일) 공인회계사반(3학년 과목, 세법, 경영학) 등이며, 고등고시반은 헌법, 영어, 국사 3과목이 각 학년 동일하다.

고시장학생의 혜택은 장학금(A장액=수업료 전액, B장액=수업료 반액), 등·하계 합숙식 식비보조 등이다. 선발고사와 관련해 김선정 위원장은 “총36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99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 미달과 평균점점 2.0미만인 자는 장학규칙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도청소년 교내 견학

장학과(과장=안석호)는 지난 28일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경주 지방 검찰청과 연계해 청소년 선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견학을 실시했다. 건전한 대학문화를 접하고, 선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백여명의 선도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교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진행됐다.

또한, 선도 학생들은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학교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고, 대동제 행사 관람 및 학내 견학을 하는 등 학교에서 마련한 일정에 참여했다.

세계화 장학생 영국연수

학술연구부(부장=고정택·철학)는 금년도 세계화 장학생 선발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지난 20일과 26일 치른 토익시험과 면접시험결과로 선발하였으며, 선발기준 입학수능성적(상위20%이상 자격가능), 토익성적, 면접시험이 각각 50%·40%·10%씩 적용되었다. 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10일(예정)부터 2주간 영국 엑시터대학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98학번으로 △의예-나세정 △한의예-김영호 박종을, 노진주, 김규남, 이은수, 성동호, 이희승, 류원철, 박정현, 안혜준, 김아림, 천진홍, 김용환, 석명진 등이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정보관리처(처장=임재걸·컴퓨터학)는 지난 28일 제2회 동국사랑 홈페이지 경진 대회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의 시상내역을 살펴보면 개인부문(14명 응모) △금상-하달봉(의학과)교수 △은상-김상복(행정학)교수 △장려상-박경일(사회복지학)교수, 김기권(법리학)교수, 고소미(컴퓨터학과 야간)조교, 이도한(경제4), 이범길(경상학부2) 등이며 단체부문(13팀 응모)

은 △금상-관광경영학과 △은상-DKBS △장려상-안전공학과, 소리창고, 정보통신공학부, 경제학과, 시스템 분석Lab 등이다.

심사위원은 임재걸 처장의 3명이었으며, 심사기준은 독창성, 내용,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해 정보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홈페이지 내용과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다음 대회에도 더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야옹 커피자판기 저가운영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백석호·정보산업3)는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흥관 2층, 자연과학관 3층에서 커피를 저가로 판매한다. 시험기간중 야간강좌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실시될 커피자판기 판매는 10원만 투입하면 작동 가능하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백석호 회장은 “저가의 커피자판기 효용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교육원

다양한 시청각 교재 구입

외국어교육원(원장=정내원·영어영문학)은 “지난 5월부터 구입한 시청각교재(오디오 테이프 52개, 책 9권, 비디오 테이프 44개)를 시청각각도 사실에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각 도서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2학기부터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새롭게 구입된 시청각 교재 테일을 살펴 보면 △The Realist novel:The Language of Realism 오디

오 테일 1개, 책 1권 △Romantic writings: Romantic poets 오디오 테이프 1개, 책 1권 △로버트 할리와 함께 히트 잉글리쉬 오디오 테이프 50개, 책 7권 △CNN News 비디오 테이프 12종 △영화비디오 테이프 32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청각 도서실의 한 관계자는 “시청각 도서실을 언제든 개방하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강연

사회과학원 인보연구부에서는 대북포용정책과 금강산 관광사업 :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99년 6월 4일(금) 13:30~18:00
2. 장소 :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3. 주최 : 사회과학원 인보연구부
4. 후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캠 사회과학원

금강생활관생 선발

1.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9. 6. 7(월)~ 9. 6(수) 17:00까지
 - 나. 장소: 금강생활관 사무실
2. 자격 : 재학생인 학생으로 99학년도 제 2학기에 계속 학업을 이수하고자하는 학생(단, 복학대상자는 8월 중순 이후 복학신청 후, 접수 및 선발예정)
3. 선발기준
 - 가. 불교신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나. 성적 및 품행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 다. 경주, 영천, 포항, 울산 등 근거리 거주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 라. 기타 관생 선발 규정에 의한다.
4. 제출서류
 - 가. 입원원서(본관 소정양식) 1부.
 - 나. 서약서(본관 소정양식) 1부.
 - 다. 불교도 신행증 또는 수계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라. 전학년 성적증명서(복학대상자에 한함) 1부.
5. 선발자 통보 : 하계방학 중 가정으로 우편통보(불합격자 포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생활관 사무실(☎779-0104~6)로 문의할 것

경주캠 금강생활관

99 예비군 교육 훈련 소집

1. 교육대상
 - 가) 기본훈련 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92~97 전역자)
 - 나) 소집집점 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98년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 가) 99년도 전역자
 - 나) 91. 12. 31일 이전 전역자(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 다) 사무직 (초교 포함) 및 기능직 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 가) 기본훈련 및 소집집점 대상자(전역 1~7년차) / 동천 훈련장 (1대대)

6. 21(월)	6. 23(수)	6. 24(목)	6. 25(금)
불교대 인문대 법(주, 아)	자연과학부 생물, 화학 생화학	전산정보학부(주, 아) 통계정보 전자계산(주,아)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주, 아)	안전, 경제 국제통상 경영(주, 아) 회계 국제경제
4. 복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화, 전투화, 고무립,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6. 유의사항
 - 가) 경주시청 동천청사에서 산업도로 건너 500m지점(석탈해양를 뒷편)
 - 나)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험수 통제)
 - 다)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 라)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 ※예비군 연대 본부 연락처 : ☎770-2071~2

경주캠 예비군연대

외국어특강

1. 프로그램

종합영어					
요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반	영어회화 (정원18명)		독 해		TEPS L/C
오후반	영어회화 (정원18명)		독 해 (정원18명)		TEPS L/C
2. 강의료 : 종합영어 ₩30,000
 - ※ 개별수강가능 → 말하기 듣기 ₩20,000
 - 독 해 ₩20,000
 - TEPS L/C ₩10,000
3. 강의기간 : 99. 6. 7 ~ 99. 7. 2(4주)
4. 강의시간 : 오전 8:00 ~ 8:50 (50분수업) / 오후 5:10 ~ 6:00 (50분수업)
5. 강사 :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권위자
6. 강의대상 : 학생 (일반인도 가능)
7. 접수기간 : 99. 5. 24 (월) ~ 99. 6. 4 (금)
8. 접수 및 문의처 : 원호관 3층 시청각 도서실 (☎770 - 2468)

경주캠 외국어교육원

학생생활상담센터 심포지움

- 주제 및 발표자 -

제1주제 : 대학생의 음주문화
발표자 : 조성기(한국생산성본부 연구위원·알콜문제연구소 소장)

제2주제 : 대학생의 출연문화
발표자 : 박정환(웹스비전2 건강교육개발원 원장)

제3주제 : 대학생의 성의식과 문화
발표자 : 현해순(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1. 일시 : 99년 6월 1일(화) 오후 2시~5시
2. 장소 : 학림관(사범대학) 소강당
3. 주최 : 학생생활상담센터

서울캠 학생생활상담센터

“국보법 철폐하고 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캠 총학 주최로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대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 주최로 ‘국가보안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백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민중주의의 법적 연구회 최정학 연구원의 ‘국가보안법의 법적문제’ △인권운동시상방 박래군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과 인권문제’ 발표에 이어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의 김이경씨의 피해사례 △정연옥 전국연합 정책부장의 ‘국가보안법과 통일문제’ △성남현 서울캠 부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과 한총련의 이적 규정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적으로 평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강정구 국가보안법은 가장 반역사적, 반민주적으로 출발했다. 1949년 12월 제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한 7연대에 소속된 군인들이 인민들을 살육하는 학살 만행에 반기를 들고 여순 군민항쟁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일체의 좌익 사회단체와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그해에만 12만명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당시의 우리 남한 민중들의 역사 지향은 사회주의가 압도적이었다. 미군정정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전체의 70%를 넘었고, 공산주의가 7%를 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의 이념을 불법으로 간주한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인 것이고 이것이 벌써 5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총학은 국민회의와 법무부의 실무자가 토론회참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발전적인 여론 수렴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라는 정권의 모습에 반하는 정권의 반민주적 모습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정권을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7기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성남현(응성4) 서울캠 부총학생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을 긍정

최정학 국가보안법은 법적문제의 네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제정배경과 위헌성, 헌법의 해석으로 볼 때의 문제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문제이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을 강권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실정형법보다 5년이나 먼저 제정되었고 위헌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통일의 원칙과 의 모순 문제, 사상의 자유를 침해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인 강정구 교수가 국보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적용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박래군 사상의 자유는 주류사상을 만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소수의 사상도 허용하는 것이다. 특정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차별받거나 자신의 사상을 고백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전제와 관련해 볼 때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을 남기게끔 했고 반공사상의 횡포에 의해 이를 비판하는 사상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김이경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터지기 전 울산의 상

황은 노동자 대투쟁이 예견되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국가보안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죄도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땅에 양심은 없다.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연옥 국가보안법은 분단 때문에 생겼다. ‘통일’이라는 것이 북한과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작게는 서명운동과 선언운동 비롯해서 실질적인 국민사업을 펼치기 위해 전국연합에서는 오는 6월 25일을 전후해 국민적 투쟁봉투를 고민하고 있

다. 또한 8월의 통일투쟁이후에는 기층에서만이 아닌 모든 대중들이 공감하는 철폐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남현 한총련은 전국의 백만학생들의 자주적 조직체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허울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홍익대에서 열린 예정이던 대의원대회를 막았으며 대의원들의 수배, 구속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은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의 가장 큰 피해자며 이적단체가 아닌 국민들을 위하는 위민단체이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통일의 적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일방통행

“학생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과는 입학하고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모집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7일 정보문화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식당문제 해결과 학부제 확대 반대’를 위한 일꾼 전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부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의 대학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학과와 학과의 벽을 넘기 힘들며 적성과 소질보다는 입학시험성적에 의해 학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과나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각 대학에 학부제 시행 권유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그 수요에 맞게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개방압력과 대학의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열린 토론이 오고가고 학생들은 학교측에 학부제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다.

본교는 96년도부터 학부제를 시행해 매년 학제개편의 대상이 돼 몸살을 앓고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모집단위가 매년 바뀌어 오다가 내년에는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는 학과도 있다. 아무리 학부제가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졸속 시행’의 모습으로 비춰져 학생들에게 불신과 반발을 살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 주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명진관 앞에서 학부제 확대를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였다. 교학과는 학부제 관련 공문의 접수 거부했고, 학과장 면담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학사구조조정이 학과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수렴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는 학교측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면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는 의구심이 든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99년 그리고 학생운동

실천하는 다수에 의한 운동으로

불교대학인 본교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9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범 불교인 1백만명의 서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을 때이다.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불교에 관한 기초 상식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광주의 수천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억압통치를 통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라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즉시 부끄러웠다.

이런 부끄러웠던 기억에서부터 99년의 학생운동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97년의 부끄러움이 나오는 상관없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는 97년의 경험에서, 우리의 방관-불교인이 중심이 되어 전두환 석방을 요구한 서명운동에 대한-의 대가가 50년 만에 교제한 정권이 지긋지긋한 5·6공 정권들과의 정치적 야합을 보게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적당히 용서해 줬으니까.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방관하고 있으며 정치는 학생운동이든 똑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독자청정하겠다고 하지 않는지.

‘나침반은 정방향을 가리키면서도 항상 떨리고 있다. 나침반의 떨림이 멈춘다면 그것은 재능을 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은 현재의 학생운동에 큰 교훈을 준다. 한 곳을 가리키고 멈춰버린 나침반의 바늘처럼 올바른 것, 자신의 모습에 대해 더 이상의 부정과 되돌아봄을 게을리 한다면 학생운동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학생운동에 있어서 단결과 혁신은 이러한 자세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 학생운동의 밝은 전망이 있을 수 있다.

현재도 한총련의 장 선거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드러내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99년 학생운동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활동에 따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95년 이후 분열된 통일운동은 전국연합의 자기비판을 계기로 단결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 사회적 위기의 근본인 미국에 의한 질서

‘변화의 물결속에서 전진하는 주체로’

재편과 정권의 미국 추종이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한·미·일 공조를 통한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경제적 문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IMF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등을 과거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남북축구의 실현 등의 민족대단결의식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99년의 정세전망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운동세력의 전진하는 정세로 발전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에 기초한 역사가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한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거나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든 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사회는 발전 또는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에게만은 예외일 것 같던 실업이, 우리집만은 예외일 것 같던 경제적 어려움이 나와 우리가정은 비껴갔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혁신시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운동권 몇몇 사람이 아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와 우리 삶의 질은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다. 구준서 98년 서울캠 총학생회장

이대현 양을 만나

“노인들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항상 운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는 게 마음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온 이는 1년 넘게 꾸준히 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 온 이대현(북한4)양이다. 4학년으로서 취업준비, 학과공부 등으로 분주함에도 대현양은 지난해 5월 본교 ‘참사랑 봉사단’의 불우이웃돕기 봉사팀에 들어간 후, 지난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연꽃마을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연꽃마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평균 연령층이 80대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체·정신적 장애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근지역에 무허가·재개발 추진 집들이 밀집돼 있어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그나마 이곳을 이용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그분들을 볼 때면 들어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워져요”라고 눈시울을 붉히는 대현은 이곳에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원예치료’나 노인들이 옛날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회상치료’를 통해 노인들의 치매와 중풍 예방을 돕기도 한다.

리나라 노인복지에 90년대 들어 매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99년 현재 0.24%에 불과해 대만의 3%, 일본의 17%와 비교할 때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97년부터 인복지예산의 절대액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노령수당의 인상과 경로연금의 실시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좀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해요”라고 수줍게 말하는 모습에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

그녀는 작년 9월 본교가 주최한 중구내 독거노인 ‘사랑의 나눔잔치’ 행사에 참가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올해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고 이미 97년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6.3%를 초과해 오는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8시까지 연꽃마을에 가야 하거든요”라고 말하며 미안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제2, 제3의 대현양을 기대해 보게 한다. <연>

nina@cakra.dongguk.ac.kr

코리안 드림은 ‘악몽’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을 밟고 있다. 값싼 노동 인력을 중동 등 해외에 수출했었던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상대적 고임금시대를 겪고, 이제는 산업기술 연수생 등의 이름으로 오히려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찾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95년 7월에 설립된 22개 단체를 산하에 둔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중 하나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각종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곳이다.

최근에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며 자료를 꺼내시는 신완규씨는 미얀마의 Aung, Min, Win씨들 3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단에 있는 영세업체에서 하

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2년여 동안 일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일했던 기업의 사장이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2천만원에 상당하는 빚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빈 몸으로 청춘을 바친 이곳 한국에서 출국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신완규씨는 “이외에도 일을 하다 보면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이 접수된다”며 “특히, 사망상당, 의료상당 등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하기가 수월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발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됐던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는 그간 무단 이탈, 불법 취업의 증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 미흡 등 국제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내국인

실업난 해소와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며 이민담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한 것 등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산업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의 근본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흔히 3D업종이라 일컬어지는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리를 대부분 외국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마저 70%가량이 불법체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제연합으로 발돋움하는 유럽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화, 문화적 환경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는 UN국제 인권기준과 국제 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관주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일제시대이나 유희했던 민족주의가 지금은 단일 민족 콤플렉스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는 길이 있는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해 뒤 “우리나라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슬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단위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 이런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대학교육개혁의 나아갈 방향

학문성격·사회수요 고려한 교과과정 운영해야

대학의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부제 또는 학생 모집단위의 확대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교사들의 반발이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등 종래 교육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수학적인 하향조정, 복수전공의 활성화, 전과(부)의 대폭적인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학생의 선택권은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그 결과 공급자 우위의 여건 하에 인주하여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둘러싼 경쟁이 별로 없었던 기존 대학교육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백화점식 학과체제하에서 형성된 전공간의 높은 장벽도 점차 허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그 동안 교육개혁의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이 가시적으로 높아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 대학에 도입된 경쟁이 무엇을 둘러싼 경쟁인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쟁은 예컨대 교수의 강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기대되고 있지만 그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고, 학생들이 그것을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보다는 졸업장을 증시하는 사회풍토가 바뀌어야 하며, 연구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문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보니

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과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충실화하는 데에 앞으로 교육개혁의 역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운영방식을 모든 전공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공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초학문의 습득을 요구하고, 편입생만을 쫓기 쉬운 학생 선택권의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낙연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대학에서 경쟁의 원리를 올바르게 세운다든지 사회수요에 맞게 교과과정을 충실화하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과감한 투자가 불가결함은 물론이지만 교직원과 학생들도 지금까지 인주해 왔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은 이제 시작한 데 불과하다고 하겠다.

사설

검찰을 개혁하자

법무부 장관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지난 2월 신재륜 대구 고검장의 항명사건때 눈물까지 흘리며 "검사가 된 걸 후회한다"더니 이번에는 아예 장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대 검찰총장 출신들은 집권세력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임기후에도 끈질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기춘, 김도연씨는 임기후 국회의원 직함을 갖고 출세기도를 달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 됐다. 일선 검사들로부터까지 무능하다고 지탄받았던 김태정씨는 특하나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치권을 오싹하게 했던 터라 미운털이 박혔을 만도 한데, 총애가 워낙 두터웠는지 새로 출범한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것이다. 무조건, 나쁘게만 돌아볼 것이 아니지만 생각이 지푸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비단 이번 문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검찰과 정권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너'라는 별칭을 갖게된 것도 분명 우연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견고한 스크립트를 짰 채 권력의 고물을 얻어 먹다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오자 심히 당황하며 그를 차단해 버리고, 정치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때도 웬지 시뮬레이션 감춤을 주고 있는 듯한 검찰.

최근들어 이러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언론들과 재야단체 그리고 경찰 일선간부들까지. 요지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심하게 부패해 권력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스스로의 각성에 근거하여 검찰조직전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검찰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법을 운운할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대동제의 과제

온방골 곳곳에서 열렸던 99년식 대동제는 저학문화화, 입석가야제, 락 밴드 연합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른 후 백산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느해와 달리 올해 행사는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불법주박·분식, 불법주차 등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된 점, 몇몇 자치기구가 주체적으로 외부 상행위를 부추긴 것 등은 여전히 고쳐야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실제로 내세울만한 대학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대중문화와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버린 시점에서 대동제는 대학과 대학문화를 보여주는 유일한 행사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대동제에서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실제 대학생들의 삶인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온방골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가 느끼는 대동제의 시작과 끝은 개막식이나 백산연이 아니라 주말을 세우는 작업과 거두는 작업 즉, 숭늉화가 대동제의 시작과 끝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내에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제간에 대화가 성립되고 친구들과 진솔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대학사회에서 대동제가 어울리기 위함이 아니라 숭늉화 이면의 상업성으로 존재해 간다는 점, 학내가 상가로 변모하는 과정은 현 시대의 대동제 문화가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는다.

서로간에 공유하는 것이 없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단순히 즐기기위해 대동제가 치러지고 유지된다면 대학과 사회의 경계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대동제가 되길 구성원 하나하나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점점 높아가는 창업 열기

아이디어 있어도 경영 능력은 부족

대학의 전문인력 활용 지원 필요

취직 걱정할 것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해 승부를 걸겠다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로 벤처 창업이다. 이들은 현재 창업 전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적은 자본과 기술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분야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창업을 지망하는 이들에게도 창업 강좌나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경험자들에게 되도록 많은 조언을 구하는 등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창업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한양대에서 열린 벤처창업경진대회 설명회 자리에는 인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장의 창업 성공담을 듣기 위해 모인 대학생들로 벵자리가 없이 꽉 들어차있으며, 또한 열마전에는 대학을 다니며 벤처기업을 운영한 강수현(25, 서강대 경영학과)과 쫓겨가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해 벤처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고도 했다.

따라서 창업 붐과 맞물려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벤처 창업을 준비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들을 돕는 대학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이지만 대학에는 경영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있다해도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또 그 상품의 판매전략을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사장'들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대학이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본교 서울캠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억 1천 5백만원의 지원 받도록 결정돼 현재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창업보육센터는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일정한 기간 입주시켜 그 기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서울캠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내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등을 통하여 20여 개의 기업을 선정, 입주하도록 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 할 예정이다. 경주캠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여원을 지원받아 올 2학기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던 경제였기에 나라 살림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이

Mr. IKE & HIS KARMA (이익훈과의 만남·인연·연분) 영어청취 시험전문 이익훈어학원. Includes contact info: 강남: 3472-3322, 종로: 735-3322, 이익훈어학원 부설 한미유학원: 3472-2333.

방학특강.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text: '영어! 세계로!'. Also mentions '성문외국어학원' with contact info: 1호선 종각역 종로서적 뒤 738-5151(4).

시사영어학원. Includes a logo with '1961' and text: '영문외국어학원'. Contact info: 종각역 4번출구 종로서적 뒤 TEL. 734-2442.

싱그러운 오월, 젊은 만해를 꿈꾼다



일상자

시부분

- 장원 최선희 (염평여고 2학년)
- 우수 1석 김은석 (충주여고 3학년)
- 우수 2석 안수정 (안양여고 3학년)
- 가작 1석 정수정 (김해중앙여고 3학년)
- 가작 2석 박지현 (안양여고 3학년)
- 가작 3석 유선우 (경북외국어고 2학년)
- 가작 3석 김선자 (안양여고 3학년)

소설부분

- 장원 박소영 (대진여고 2학년)
- 우수 1석 이가현 (안양여고 3학년)
- 우수 2석 박예원 (영성고 3학년)
- 가작 1석 서진리 (광주숭일고 3학년)
- 가작 2석 박지영 (진명여고 3학년)
- 가작 3석 박찬민 (중동고 3학년)
- 가작 4석 김세정 (보성여고 2학년)

수필부분

- 장원 강예진 (가라고 3학년)
- 우수 1석 민보라 (진명여고 3학년)
- 우수 2석 조은진 (동일여고 2학년)
- 가작 1석 강소영 (보성여고 3학년)
- 가작 2석 유미선 (강일여고 1학년)
- 가작 3석 박선아 (영광해룡고 3학년)

심사위원

시부분

- 신경림 (본고 국어국문학부 석좌교수, 시인)
- 문정희 (본고 국어국문학부 겸임교수, 시인)
- 홍신선 (본고 국어국문학부 교수, 시인)

소설부분

- 김주영 (소설가)
- 한용환 (본고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가)
- 이원규 (본고 국어국문학부 겸임교수, 소설가)

수필부분

- 홍기삼 (본고 국어국문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 정재봉 (월간 샘터 주간, 동화작가)
- 양영진 (본고 사회학과 교수, 분사 주간)

2학기 일반휴학원 접수

- 9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신청기간 : 99. 6. 21(월) ~ 6. 22(화) = 2일간
 2. 신청자격 : 99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도장 지참) 1부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2학기)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재적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복학·재입학원 접수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9. 6. 14(월) ~ 15(화)
2.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역증 사본 불가)
 - 2) 전역예정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서울캠 교무처

시

장 원

책, 나무, 집

I. 책
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었다.
가슴에 수를 놓고, 뚫린 입에 단추를 채워 마구 튀어 나오는 실밥같은 단어들을 동여매 주는 바늘이었다. 책은 바늘이 되기 위해 무성한 뽕죽함을 온갖 은유와 비유로 갈아 없애고, 단단 바늘귀를 눈물로 퇴색 시켜, 섬섬옥수 문장들을 꿰어내었다.

II. 나무
시인이 나무에게 물었다.
"넌 아프지 않니?"
"내 몸을 뚫고 들어온 건 '아름' 이 아니라 '성장' 이다."
시인은 나무의 목 속을 들여다 보았다.
꼬물꼬물. 그 곳에 '성장' 만이 있었다.
"다 성장하면 날아가 버리지 않니?"
나무는 대답이 없다.
시인은 자기 목 속에 바늘을 찔렀다.
아프다. 시인의 몸을 뚫고 들어 온 건 '아름' 이다.

III. 집
나무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 온단다."
시인은 바늘을 다시 갈고, 실을 꿰어 가슴에 수를 놓는다.
날아가 버린 문장이 다시 온기를 기다리며 밤새 문을 열고 바느질을 한다.
(시인은 문장이, 바늘이 드나들기를 기다리는 집이 되었다)



최선희
염평여고 2학년

우수 1석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

저렇게 긴 강에 밤이 김어서
오늘도 아버지 쓸쓸한 담배재가 떨어졌다
어머니 머마른 손끝에서 비껴이던
목구멍같은 밤이
그 깨달음 속에서 나뉘어지면
고된 인생살이 세월의 골만 깊은
아버지 얼굴의 주름살은
저녁햇살 물기처럼 외로워졌다.
넋덜거리는 가난한 옛 이야기
이가 시켰다.
수건을 차고 날도 없는 삼으로
방을 지레도 누군이라 좋다면 아버지
이미지 동사 썩어지게 지어도 낙이 없다면
그 땅에 침범코 영영 돌아서는 인물있었더라
아버지 땅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돌아 아버지 어느새 강으로 거슬러 온 언어를 돌아왔다.
연어는 물을 헤치고
아버지는 세월에 부딪히고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
달아내릴 언어를 닦아냈다.
꼭 그렇게 늙었다.
뒤돌아볼새 없이 일어가는 것들
언어는 강내를 잊지 않는다.
별은 멀어 등급은 아버지 볼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한반도 가슴 속 뜨거운 별을
지워본 적이 없었다.
나는 부끄러워하는 것까.
미안하게 억척스런 농투성이 아버지들.
사람들은 봄방 되면 거지마치처럼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말하는데,
맨살을 찢어놓는 항검은 강
떠나 우리의 부끄러움 하얀 손
언제고 아담바들 살아 온 우리가
서로의 빈 가슴에 그리는 것은
아버지의 강으로 통하는 깊은 시간들.
언어처럼 파닥거리며 살다가 처절하게 돌아가야 할 곳.
풍년쯤에 부푼달도 서러워
저렇게 길고 긴 강이 흐르는데
오늘도 아버지 가슴 속
꿈처럼 남은 라이터는
이 어둔 밤을 아침같이 켜려고
칙칙거린다.

김은석
충주여고 3학년

우수 2석

책, 나무, 집

밀어둔 밥상에 간신히 햇살 내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담요를 목까지 끌어덮고 누운 아빠
6년도 넘게 자리지켜 온
벤자민 화분이 베란다 창으로 아빠 발끝을 본다.

회사에서 나온 다이어리, 차에 있던 모과 바구니
증권투자 가이드책, 검은 싸이로드텐,
이면지 쓰라고 놓아두신
투자유망 스타종목, 이력서
주변에 어떻게든 놓인 물건들

똑같이 햇살 받고 있는
아버지 머리카락과 벤자민 잎사귀들의 어색함

충전 중인 핸드폰에서
뽐뽐 뽐뽐 뽐뽐 뽐뽐
터져나오는 행진곡 소리



안수정
안양여고 3학년

심사평 - "작품 수준 높은편"

글제가 여느해와는 다르게 특이하고 어려웠지만, 막상 학생들의 작품수준은 꽤나 높은 편이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었다. 기성 문학동네에서 문학의 죽음을 읊ulton 목 소리로 탄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같은 사실은 우리시의 앞날에 희망을 결게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

장원에 오른 최선희의 "책, 나무, 집"은 고등학교 특유의 풋풋한 상상력과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작품이었다. 책과 나무를 나누어 작품화하면서도 '집'에서 간결한 터치로 모든 이야기를 통통그리고 있는 짜임새도 특이한 것이었다. 결국 시쓰기의 어려움을 바느질에 견주어 마무리한 솜씨와 상상력이 이 작품의 작품다운 미덕으로 이 시를 심사위원 모두가 장원으로 뽑는데 이의가 없었다. 반면 우수 1석인 김은석의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는 호흡도 길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인, 힘찬 작품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세부에는 아직 거친 표현이 남아있어 얼마간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안수정의 '책, 나무, 집'은 시쓰기의 훈련을 많이 쌓은 매우 능숙한 솜씨의 작품이나, 오히려 그 능숙함이 작품내용의 공허함을 불러오고 있다. 시의 힘이란 언어의 세공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케한 경우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변 백일장을 통해 새삼 확인한 듯 싶어 심사위원 모두 즐거웠음을 덧붙여 둔다.

신경림 · 문정희 · 홍신선

컴퓨터 여름특강

과 정 명	강 사	일 시	기간 시간	모집인원 수강료	강 의 내 용
WINDOWS98 및 한글97 사용법	나승구	99. 6. 28 ~ 7. 9 09:30-12:30	10일 30시간	50명 40,000원	한글인두작성, 문장해석의 개념 및 특징, 조판과 문양에 대한 심층, 한글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편집, 서식, 표, 도형 등의 기능을 실습한다.
SAS 통계 프로그래밍 과정	한성일	99. 7. 12 ~ 7. 2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한글, 워드, 프로그래밍, 분석을 위한 자료의 배열, 기법(행렬, 도표, 그래프, 차트)의 응용, 기술종류에 따른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기법(행렬, 행차, 자료분류 등)
WINDOWS NT 웹 서버 구축 과정	한 인	99. 6. 28 ~ 7. 23 09:30-12:30	20일 60시간	50명 80,000원	NT의 설치 및 활용, SQL, 서버로서의 설치 및 활용, 인터넷 Information 서비스 등 서버, Front Page와 웹 이용용 홈페이지 제작 등
LINUX 입문 과정	오승현	99. 6. 28 ~ 7. 14 14:00-17: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윈도우98/95와 운영체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 리눅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홈페이지 만들기 과정	한성훈	99. 7. 19 ~ 7. 30 14:00-17:00	10일 30시간	50명 40,000원	HTML 태그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Paint Shop Pro, JAVA Script, 웹 제작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고급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다.
VISUAL C++ 프로그래밍 과정	심성진	99. 8. 2 ~ 8. 1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과 컴퓨터 사용능력이 충분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C++의 프로그래밍, 응용의 기본 개념, 예제프로그램 작성 및 응용 등
JAVA 프로그래밍 과정	한승민	99. 8. 2 ~ 8. 18 14:00-17: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자바는 인터넷 및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서, 본 특강은 자바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서, 자바 언어의 체계적인 구성을 배우고 실습한다.
Photoshop 과정	유성현	99. 8. 2 ~ 8. 1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용으로서, 컴퓨터 영상의 이해,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 이해, 실무 프로젝트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1. 신청자격 :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필히 지참)
 2. 특강장소 : 컴퓨터실습실 EB(원흥1관 3층), 컴퓨터실습실 GC(혜화관 1층), 컴퓨터실습실 FL(원흥2관 지하1층)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장소 : 정보문화관 P동 3층 컴퓨터교육원사무실(☎ 2260-3852 ~ 3)
 4. 접수기간 : 99. 5. 31(월) ~ 6. 11(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공휴일 제외)
- ※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은 컴퓨터교육원 사정에 의해 폐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폐강시에는 수강료 환불)
※ 단 폐강을 제외한 과목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서울캠 컴퓨터교육원

2학기 강의시간 체제 변경

99학년도 제2학기부터 강의시간 체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참조 바랍니다.

1. 도입 취지
 - 가. 주당 강의시간의 적절한 안배가 가능토록 하여 과목 특성에 따른 강의시간의 유연성 확보(3시간 강의를 75분씩 2회 분할 가능)
 - 나. 2시간 연속 강의에 따른 강의 부담을 분산하여 강의의 효율성 제고
 - 다. 강의실 및 시간 Loss 최소화를 통한 학생들의 교과 이수 편의 제공
2. 강의시간 모델
 - 가. 30분 단위의 1셀을 기본한 체제
 - 1) 1시간 강의는 30분 단위의 2개셀에, 2시간 강의는 4개의 셀에 배정
 - 2) 3시간 강의는 3개셀(75분)을 2회 분할하여 배정
 - 3) 강의시간은 0교시를 시작으로 9.5교시까지(0, 0.5교시, 1교시, 1.5교시... 9교시, 9.5교시)로 구성함
 - 나. 강의시간 체계
 - 1) 1시간 강의는 두 개의 셀에 배정하여 50분 강의후 10분 휴식(현행대로 실시)
 - 2) 2시간 강의는 4개의 셀에 배정하여 50분 강의후 10분 휴식 2회, 또는 100분 강의 후 20분 휴식
 - 3) 75분 강의는 3개 셀에 배정하여 75분 강의후 15분 휴식
 - 4) 야강강좌는 수업시간이 45분 단위이므로 강의시간 등의 내용 변동없이 셀체제의 형식만 도입함.
3. 유의 사항
 - 가. 기존 1교시 1시간 체제에서 30분 단위로 변경되니 강의 시간대를 정확히 숙지하여 수강 신청시 유의.
 - 나. 30분 단위의 강의시간 배정으로 인하여 개인별 시간표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다. 0교시는 08:00-08:30, 0.5교시는 08:30-09:00, ... 9.5교시는 17:30-18:00의 형식이므로 다음 강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숙지바람.
 - 라. 요일 및 교시 표기에서 정시 시작은 소수점 이하(.0)를 생략하며 매시 30분 시작만 소수점 이하(.5)를 표기함.

4. 강의 시간 예시
가. 예시 교과목

학 연	이 수	학 수번호	강의 번호	교과목명	학 점	강사명	요일 및 시간	강의실	비고
1	교선	BGC101	01	불교와 한국문화	3.0	강사1	목7-8, 금8.5-9.5	K309	A
2	교필	RGC003	01	불교와 인간	2.0	강사2	금9-1.5	K305	B

나. 강의시간표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0	(08:00-08:30)						B
0.5	(08:30-09:00)						시
1	(09:00-09:30)						간
1.5	(09:30-10:00)						
2	(10:00-10:30)						
2.5	(10:30-11:00)						
3	(11:00-11:30)						
3.5	(11:30-12:00)						
4	(12:00-12:30)						
4.5	(12:30-01:00)						
5	(13:00-13:30)						
5.5	(13:30-14:00)						
6	(14:00-14:30)						
6.5	(14:30-15:00)						
7	(15:00-15:30)					A	
7.5	(15:30-16:00)					시	
8	(16:00-16:30)					간	
8.5	(16:30-17:00)						A
9	(17:00-17:30)						시
9.5	(17:30-18:00)						간

※ 0교시는 08:00-08:30, 0.5교시는 08:30-09:00, 0.5교시마다 30분씩 증가.
※ 이부대학은 강의시간 내용 변동없이 교시 표기만 변경함(월13-15 → 월13.0-15.5)

교 무 처

소설

장원

황사

나는 먼지를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맞, 놓쳤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다른 할 일을 생각하려면 못 할 것도 없다. 먼지를 샌다는건 아주 골 때리고 의미없는 것이니까-계다가 이젠 쓸데없이 아주 많은 주의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넷, 다섯, 여...스 스... 덕분에 나는 옆에서 실재없이 쫓아대는 은경이의 말파인 가볍게 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빠가 말이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그러는거야... 아유... 내가 싫다구 그래도 자꾸만... 씨- 너 내 말 듣기가 하는거야?"
 "어..."
 먼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흙을 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어쩌면 발악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운동장의 누런모래와 철판의 분필가루가 햇살을 받으며 미친 듯이 흙을 추고 있다. 아니... 발악. 눈물나게 아름다운 발악.....

아침에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을 식탁위에 쩡 소리가 나도록 집어던지고는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간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아빠가 전형적인 다혈질이라는 것, 또 하나는 소세지... 소세지 때문이다. 아침식사 반찬으로 소세지가 올라왔나보다.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앉자 전에 성질급한 아빠는 별름별름 소세지를 죄다 집어 먹었다. 그래서 엄마가 말렸잖아... 지영이 먹을 것 좀 남기라고-그게 이유다. 그리고 아빠가 그 이후로 식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엄마한테 이유를 듣고 깔깔깔 웃었기 때문이다. 겨우 소세지 때문이야? 하면서... 그래서 난 엄마한테 미친년 소릴 듣고 아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출근해 버렸다. 후...

속으로 반항하는게 얼마나 가슴짜릿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담임선생은 성격 파탄자다. 가끔 우리반은 단 채로 혼나면서 그 또렷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난 너희들을 내 손 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어. 너희들의 그 씨어빠진 사고방식과 게으름, 태만함을 꺾어버릴 수 있어. 너희들을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알아들어. 이 새끼들아?"
 사건의 시작은 그냥 효진이 어제까지 내라던 학생증 사진을 안 낸데서 시작된다. 겨우 그거라고 혼자 지랄이야.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느낀 나는 재미있고 유쾌한 속으로 반항하기 놀이를 하기로 한다. 고개를 숙이고 무진장 잘못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릿속엔 즐거운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욕하거나 속으로 비꼬는게 아니라 운동장 밖의 새소리를 듣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꽃향기를 맡으며 봄을 만끽하는거다. 속으로는 내내 여행스케치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부른다. 봄이다. 모래바람이 포실안으로 들어온다. 다시 또 먼지를 샌다. 책상머리에 푹푹앉고 있어서 죄송한 표정을 짓지만 내 머리속은 미친 먼지처럼 흩날린다.
 선생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들을 선생님 맘대로 하실 수 없어요. 지금은 봄이고 저희 생각은 모래바람처럼 자유로운 걸요...

아빠는 다혈질이므로 아빠가 화를 내는건 아빠의 성격이고 우리식구의 운명이다. 그리고 얼마안가 곧 풀이될 것을 알기 때문에 별 걱정할 이유도 없다. 우리 포유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간다고 하질 않던가...?

헌데 이번 건은 좀 길어질 것 같다.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아빠는 한마디도 하질 않는다. 누워서 TV만 본다. 아빠 주위의 냉랭한 공기 때문에 우리식구들은 감히 근처에 접근을 못하고, 보고싶은 연속극이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재방송을 기대한다. 방에 들어간 나는 공부나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못할짓이라고 판단하고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다. 참 오랜만에 쓰는 일기다. 일주일정도 안 썼나보다. 내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다. 쓸거리가 없었던 거다. 나는 죽어도 하루가 반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로 또 내일이 올까봐 두렵다. 오며칠 사이에 나는 매일아침 일어날 때 보이는 풍경이 어제의 그것과 너무도 같다는 것에 슬막함을 느껴왔다. 눈을 뜨는게 겁이 났다. 분명 너무나도 익숙해진 천장. 어제와 똑같은 위치의 시계바늘.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을 내가 보일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쩔건데? 이젠 광계다. 골 빈 열여덟살 여자애의 구차한 변명이다. 중요한 건 일상이 아니잖아... 진짜는 생각이잖아. 학교의 시간표가, 34번 버스노선이 정해진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 생각만 다르다면 된 거 아닌가? 멍청하게 일상에 몸을 맡기지만 황지영. 매일 아침 같은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눈을 떠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기도를 하는거야. 일기를 쓰자... 일기를 쓰자... 일상을 쓰지말고 생각을 쓰자.....

-우리의 머리속은 바람에 날려 햇살에 반짝이는 누런 모래처럼 자유롭다-4월 12일

아빠가 차라리 아주 늦게 왔으면 좋겠다. 죽을 맛이다. 아빤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한다. 이를 께다. 아빠에게 저런 끈질긴 면이 있는지 몰랐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발장에 아빠구두가 있

으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된다. 아빤 또 무거운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다. 원래 난 아빠랑은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아빠의 썰렁한 유머와 술마시고 들어온 날 한애기 또하고 한애기 또하는 지긋지긋한 설교는 정말 짜증나게 싫다. 내가 사랑하는 건 아빠의 침묵이다. 언젠가 한번 할아버지 병원에 아빠랑 나랑 둘이 간 적이 있었다. 밤이었고 비가 왔었다. 아빠와 난 둘이 드라이브를 하는건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다. 그날 난 항상 엄마가 했던 운전자석 옆 조수석에 앉았고 우리 딱히 할 말이 없었기에 병원에 도

착 할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두운 차안-조용히 야광빛으로 깜빡이는 계기판-밖의 모든 색깔을 형틀어 뜨리며 쏟아지는 비-천천히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의 움직임-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보드랍게 운전하는 아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 빗방울을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중에 '아버지'란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장면을 떠올려야-하고...

그때의 그 장면은 내가 너무도 열심히 관찰한 까닭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생생한 영상을 꺼낼 수 있게 잘 저장해 두었다. 아빠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침묵을 완강히 지키고 있다.

오늘은 아자를 땡땡이치고 좀 이른 시간에 집으로 간다. 건널목에서 좀 이상한 사람을 봤다. 정박아인가 보다. 얼굴은 아저씨 같은데 키도 작고 웃도 저저분한 사람이 어디서 주웠는지 실물치를 들고 놀고 있다. 그 사람의 등에는 '심재철'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전화번호도 같이 써있다. 실물치를 갖고 놀던 그가 바닥의 모래에 손을 댄다. 멍한 눈동자엔 바보같은 웃음이 들어있다. 그의 손이 곧 누런 모래로 더러워진다. 아, 그때 한 여자가 오더니 그 사람을 발로 뺨뺨차며 욕을 한다. 못살아 못살아 하면서- 그는 손에 묻은 모래를 탁탁 털리고는 개처럼 그 여자에게 지일 질 끌려간다. 난 그때 승철이 아저씨의 죽음을 보았다. 일년전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분인 승철이 아저씨... IMF직후 아저씨 회사가 어려워지자 아저씨는 내내 담배만 피우며 고민고민 했고... 그러던 어느날 저녁 신문을 보던 아저씨는 승철이 아줌마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하드랬다. 아저씨는 계속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 말만 반복하시다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으로... 일년전이다. 일년이 지났다. 당시 그토록 괴로워했던 엄마 아빠도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아저씨의 죽음을 잊어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제 생각이 난 것일까...?

아빠의 침묵도 이런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난 평소처럼 동생들과 떠들고 웃고 한다. 아빠를 걱정하는 건 엄마뿐이다.
 "밥 먹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이말을 했다면 끝세...?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난 애교따윈 부릴 줄 모른다. 게다가 아빠가 밥을 먹든 말든 나랑은 관계없다. 오히려 사정하는 엄마가 답답하다.
 아빠는 초저녁부터 잠만자고, 우리는 아빠를 빼놓고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이·럴·수·가... 우리가 아빠를 완벽하게 '왕따' 시킨 것이다. 힐끗보니 아빤 이불을 말고서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다. 뭐? 시체라고? 그날 난 또 한번 승철이 아저씨의 죽음을 본다... 우리가 아빠를 왕따시킨 날-아빠가 푹푹달고 자던 노란 이불의 정점이... 마치 그 사람이 만지고 놀던 모래처럼... 흐려져갔다.

만세! 드디어 엄마가 폭발했다. 나흘째 아침이다. 아빠는 서랍을 뒤지며 핀자를 찾고 있었다. 뭘 찾고냐고 엄마가 물어도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랍을 뒤적거리다.
 "뭘 찾아요?"
 "....."
 "뭘 찾느나니까?"
 "....."
 "말을 해야 찾아줄 것 아니에요? 뭘 찾는데 그래요?"
 "....."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으이고 황사명씨 원래 쪼잔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정말 그자 소세지 하나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혀, 아빠의 목소리가 무섭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 만하지 않는다.
 "사람이 제 입만 알아가지고... 반찬같은거 애들 먹으라고 산데도 도대체 어른이 왜가지고 왜 그래요? 당신 맨날 술 퍼마시는 그 돈으로 애들 간식이



나 사귀었어요? 자기입만 입고 딴 사람은 주둥이리지" "그만하라고 했어."
 "맞. 엄마 위험해... 아빠는 화나면 무섭다. 방에서 두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가슴은 조마

우와 어젯밤 내가 모르는 사이 비가 왔었나? 깨끗한 하늘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촉촉한 공기에서는 모래먼지 따윈 날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하나의 즐거운 유희를 잃어버리게 되나...

조마해진다.
 "내가 당신 먹이게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요? 난 고기반찬 사도 제대로 한입 먹어보지도 못해."
 "그만해."
 "내 돈 주고 내 양말 한 켤레 사보지도 못해. 내가 내게 사느라고 당신한테 소홀한 적 없냐구요..."
 "그만 하겠지."
 엄마 울면서 계속 얘기하고 아빠는 그만 하라는 말만 할 뿐 저번처럼 방문을 쿵 닫거나 소리를 버럭지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건 결과는 엄마의 승리라는 것이다. 웬지 좋은 예감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다녀오겠습니다!"
 "맞, 실수다... 저런

심각한 상황에 내 목소린 너무 밝고 활기넘친 것 같다. 으이구... 눈치코치 없는 이 둔한 감각이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내 걸음이 슬데없이 가볍다.
 우와 어젯밤 내가 모르는 사이 비가 왔었나? 깨끗한 하늘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촉촉한 공기에서는 모래먼지 따윈 날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하나의 즐거운 유희를 잃어버리게 되나...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아빠는 다 좋아버린 떡볶이, 식은 김밥이, 싱거운 오뎅국물을 잔뜩 사들고 와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단 더럽게 맛 없는거 사왔다고 투덜댈 것이다. 그럼 아빤 괜히 또 나한테 계집애가 먹은거 치울 줄도 모른다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거냐고, 너 땀에 엄마가 살아 안짜는 거리면서 혼낼 것이고 신이난 엄마는 자기방 청소도 자기가 할 줄 모르며, 어제는 아자까지 땡땡이 쳤다고 아빠한테 다 일을 짓는다.
 에고에고... 집에가면 좀 많이 피곤하겠군. 날씨가 짜증나게 좋다.

박소영
 대전여고 2학년

심사평 - "서사적 상상력과 문체 미학"

예년에 비해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우열이 크지 않아 심사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안도와 고마움마저 느꼈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제목으로 완성해야 하는 백일장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작품이 균제된 문장,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었다.

우수상 박예원의 '별'은 서사적 상상력은 약했으나 유려한 문체가 인상적이었다. 이기현의 '황사'는 청소년의 의식세계를 조형하는 상상력과 입담이 돋보였으나 문체의 유려함이 부족해 아쉬웠다.

장원을 차지한 박소영의 '황사'는 소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루 갖춰진 수작이다. 천부적인 재질과 문학수업의 축적이 엿보이는데다,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도 강했다. 정정을 바란다.

김주영·한용환·이원규

수필

장원

꽃과 잎

꽃집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잎집이라는 곳은 없다. 꽃집에 들어가 보면 한 줄기에 꽃과 잎이 같이 달려 있는데도 말이다. 꽃다발이라는 말은 있어도 잎다발이라는 말은 없다. 꽃다발에는 꽃과 잎이 함께 있는데도 말이다. 꽃한송이라는 말은 그것에 딸린 잎까지를 같이 부르는 것이지만 잎 한 장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단지 잎만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 말에는 꽃이라는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잎이 들으면 서운해 할 지도 모를 얘기다. 하지만 중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들 한다. 꽃은 중심적인 존재이고 잎은 부수적인 존재니까……

꽃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다. 꽃을 피워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꽃이다. 그래서인지 꽃은 잎보다도 돋보인다. 색도 짙고 생김새도 예쁘다. 또 향기까지 난다.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꽃보다는 잎을 더 좋아한다. 잎이 없는 꽃이란 있을 수 없다. 길바닥 구석 좁은 틈새에 피어난 자그마한 민들레에도 잎이 있다. 잎은 꽃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잎은 꽃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한다. 꽃의 색과는 반대되면서 꽃의 색보다 눈에 띄지 않는 양전한 색을 띤 잎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색은 꽃의 빛깔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잎은 꽃보다 위에 달리는 법이 없다. 항상 꽃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는 겸손한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꽃보다 잎을 더 좋아하는 이유이다.

내면의 성숙함이 잎의 모습이다. 꽃은 어떤 지 자만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꼭 잎이 없어도 저 혼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자만심에…… 그런 면에서 보면 꼭 내가 꽃인 것 같다. 그리고 엄마는 잎이라고 할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양보하신다. 꼭 잎이 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과 닮았다. 잎의 색이 꽃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은 엄마 자신보다 딸인 나를 더 소중히



꽃은 잎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잎의 존재가 아니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외면적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잎의 마음가짐에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잎이 꽃보다 아래에 달려 꽃을 더 높게 보이려 하는 것처럼 엄마는 당신을 낮추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눈에 띄는 줄, 내가 제일 높은 줄 안다. 꽃의 자만심이다.

꽃은 잎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잎의 존재가 아니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외면적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잎의 마음가짐에 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빛을 잃지 않는 가치있는 아름다움이다. 이제는 나도 잎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배경이 되어 중요한 존재를 받쳐주고 돌

보이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우선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란 쉬운 듯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위한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꽃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잎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잎의 자세가 아름답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꽃도, 어떤 잎도 혼자서는 아름다울 수 없다. 꽃은 잎의 역할로 더 돋보이게 되고 잎은 꽃이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꽃과 잎의 어우러짐이야말로 최상의 아름다움이다. 모든 것에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듯이 꽃 한 송이에는 꽃의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에 어우러진 잎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면서 또 그 중요한 존재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하는 중심적 존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다지 꽃만큼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마치 한 송이의 꽃에 여러 장의 잎이 붙어 있듯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잎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그만한 가치로 소중한 존재가 된다. 비록 중심적 존재가 아니라더라도 중심적 존재를 비취주는 소중한 존재야말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잎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꽃처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일처럼 겸손한 마음가짐이 좋다. 꽃과 잎의 조화 속에서 조용히 잎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꽃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잎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함께 있는 꽃과 잎을 떠올려 본다. 역시 꽃과 잎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강예진
가락고 3학년

우수 1석

무지개

만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무어라고 딱히 분류하지 않고 그저 무수히 많은 '것'들 말이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의자, 손에 쥐고 있는 펜, 종이, 공책, 시멘트 바닥……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느낄 수 있는, 즉, 물질적인 것들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급급해 살아 온 까닭일 게다.

무지개, 비가 오고 나서 개인 후 생기는 색깔의 무지개…… 솔직히 정말 천연의 무지개를 봤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 익히 경험했듯이 무지개가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쉽게 볼 수도 없을뿐더러 볼 수 있다고 해도 만져볼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 만져지지 않는 것, 즉,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써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먼저 가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는 각박한 이 시대에 순수한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

언젠가 비가 오고 난 후, 아파트 저편 하늘에 걸려 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본 것이 처음이었던 일이라, 그 후로도 며칠동안 내 입에서 자량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생각난다. 그 때, 무지개의 색깔은 우리가 익히 그림에서 보았던 것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잿빛 아파트 머리 위로 떠오른 그 천연색은 나의 환호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지개를 본 내가 느낀 것은 색깔의 띠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은 일종의 미덕이었다. 하

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넘어갈 때에 아릿하게 이어지는 경계 아닌 경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무지개가 다른 색보다 강한 어떤 색에 의해 단색의 띠로 되어있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그 아름다움을 지금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본 내가 느낀 것은 색깔의 띠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은 일종의 미덕이었다.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넘어갈 때에 아릿하게 이어지는 경계 아닌 경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는 서로를 소유하려 한다. 비단 남녀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에 대한 고충을 겪곤 한다. 사랑이라는, 관

심이라는 명목아래, 서로를 자신에게 동화시키려 하고, 그 속에서 다투고 상처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만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처럼 서로의 색을 소유하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미덕, 바로 그 자연의 미덕에서 우리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는 무지개처럼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황된 소유욕으로 우리 속에 내재된 순수한 영혼을 더럽힌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적이 있다.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전정을 일으키

고, 끊임없이 싸우는 까닭은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하기 때문이라는.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이유도 있는 채, 그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결국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만다는……

비록 내가 무지개를 통해 느끼고자 했던 '소유'에 대한 관념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던져주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해 볼 어떤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소유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하고자 했던 이상향 속에 색깔의 무지개를 떠올려 보자. 언젠가 보았던 그 무지개가 떠오른다. 흐릿하면서도 환상처럼 걸려있던 무지개…… 문득 울려다 불하늘에 무지개는 없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 걸린 무지개를 떠올려 보자.

지금 이 순간, 순수한 영혼의 빛깔을 담은 무지개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

민보라
진명여고 3학년



남기고 싶은 한마디

△식당이 레스토랑처럼 좋아요.
△스님들 뒤통수가 귀여우시다.
△우리엔 동국대 98학번이얏.
△동국대 너무 멋있어요. 동국대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동국대 짱!

△밥 맛있는데 요거트에서 신김치 맛이나요. 장원타면 동국대 올겁니다. -N·M-

△특기자 전형에 모든 4년제 대학입상자 포함시켜 주셨으면……
△나두 삼촌 주지…… 흥!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정채봉시인같은 사람이 될지…… 기대하쇼. 근데 여기 방송시설 굉장히 좋더구만요……서울사대 방송반

△다시온다.
△설희야. 난 니가 될 줄 알았어. 글구 언니 나~도 나가서 노래 부르고 싶었던 말이에요. 치~인. 덕성나라 은희공주

△울고싶을 때 눈물을 흘리리라. 박동준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요. 나 한 살만 어렸어도…… 구뎁 안녕~.

△난 임상했다.
△나도 임상!

△그래 HOT 노래 불러서 수필집 받은 것 만으로도 기쁨! 근데 강타오빠 어디에…… 대구고 STUENT

△노력하는 모습은 실재를 해도 아름다다 -금정여고에서 온 S가 썼습니다.

△허무와 기쁨이 만감하는 이 순간 나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동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좋네요. 열광하고 문예부입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정말 좋습니다~)
△잘있거라 서울아. 다시보자 동국대야. 성적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하이라.
△상재고가 최고야.

△삼 못타두 입선이닷!!
△양지는 왔다감! -설희도!

△전북 순창제일고에서 '정아·유미' 왔다가다. 순창에서 온 사람은 우리뿐(?) 최초의 대학교는 동국대!

△오늘 HOT오빠들 못봐어도 가서 봤다고 뺨칠생각이에요.
△슬픔. 그게 내 뒤에 있다.

△수원 삼성블루밍즈 파이팅. -SES
△젊은 만큼 꿈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원고쓰다 꿈도 못꿈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소설시간 너무 짧습니다.

△이문열씨도 양귀자씨도 동대문학콩쿠르오면 시간안에 결말 못낼걸?
△맛이맛아 등감……

△거참! 글쓰는데 마이크 남용하지 맙시다.
△나는 타인의 인생을 쓰는데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써주니? -사인

△밝은 미래를 꿈꾸는 도전은 아름답다.
△글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모두 건필해서 좋은 작품 많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버리다! 후회할거야
△고3으로 동대 백일장에 마지막으로 참가하고 갑니다. 글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대 백일장에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시대를 노래하는 젊은이가 되고 싶다. P·S 동대신문 집으로 한 부만 보내주세요

△경북 김천에서 왔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학교경치도 너무 좋았고 유명한 시인들도 봐서 좋았어요. 동국대를 HOT오빠들 때문에 알았는데 오빠들은 보지 못했지만 기분은 좋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건너야 할 사막을 가지고 있대요. 동국대 언니, 오빠들 꼭 그 사막을 잘 건너시길 바래요. -성의여

중고 유진미
△동일여고 선배님~ 저희 왔다가는데요. 선배님들 못 봐어서 너무 섭섭해요. 동일여고 파이팅 -수현, 소정

△수원영생고 천재시인 이제한 왔다감. 나의 명작을 아무도 못알아봤다!!!

△선영여고에서 어린이가 왔다가요. 선배님들 내년에 저 동대신문사에 들어오면 꼭 받아주세요. 선영화이팅, 동대화이팅

△난 동국대에서 어떤 빛을 본다. 그 빛은 동국인들의 여유있는 얼굴에서, 동국대 교정 이곳저곳의 푸르름에서 그리고 감히 꿈꾸는 어떤 희망에서, 눈이 감기는 따스함으로 온다. 평생 이빛을 기억하리라. -최고가 되기를 꿈꾸는 부평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유정

△수근오빠학교 와봐서 좋았구 암튼 좋은 경험이었다.

△저는 시흥에 사는 예쁜 아이인데요, 토니오빠 강타오빠 못보고 가요. 보고 싶었는데…… 미워. 학교졸 잘 나와서 공부열심히하세요.

심사평 - "실험적 시도 아쉬워"

올해 수필은 우선 양적으로 풍년이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풍요를 앞섰음을 밝힌다. 그것은 문학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실험적'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수필의 '신변이야기'로만 굳어져 있는 틀의 파괴를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구한 전통이 강물처럼 유장한 '동대백일장'에 모인 젊은이들 중 변칙적이고 천지를 가르는 번개가 되어 잠신한 작품이 떠오를 법도 하지 않은가.

주어진 제목 '꽃과 잎' '무지개'를 선택한 비율은 반반이었다. 그러나 참신성 쪽은 '꽃과 잎'을 쓴 학생가운데 많았고, 무지개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소화력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주제와 구성과 문장이 삼원색의 표지 않은 취임에 따라 내놓고자 하는 새로운 색깔(작품)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수필은 붓가대로 쓰여지는 글'이라는 오해에 기인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붓가대로 쓰여지는 글이란 어느 정도 완숙한 작가에 해당하는 말이지 이제 문학의 초입에 들어서는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이론이 아니다. 수필도 여느 문학장르와 마찬가지로 주제의 설정과 구성의 짜임이 완벽해야 한다.

이번에 입상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순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입상자들은 물론 선의자들에게도 글복을 빈다.

홍기삼·정재봉·양영진

신작안내

그리고 어느날(시선집)



마치 시인과 대화하듯, 수필처럼 감미로운 시가있는 행촌(杵村) 백한이의 시선집.

신구대학의 길영란이 1천6백수의 백한이 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백한이 시인의 토속적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예술로 시인의 내면세계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상을 향하여', '사람아 내게로 오라', '다운 당신', '그리운 날'의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시선집은 시인의 삶 그자체를 하나의 스토리 형식으로 표현.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백한이 시인만의 독특한 언어로 형상화했다. 우리는 이 시선집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 듯. 한미디어 출판사. 정가 6천원.

A tribute to 1977-1996 (음반)

진보적이고 건강한 노래문화에의 갈망 "고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1977년부터 1996년까지의 서울대 노래래 '메아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음반. 각기 다른 세대 20대들의 음악, 그들의 아름다웠

던 시절의 노래가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이번 음반은 원곡의 느낌을 유지한채 노래의 개성을 극대화시켜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삶에 대한 '메아리'의 다짐의 표현이자 그들의 적극적 외침. '메아리'가 1977-1996의 시대에 바치는 이 조그만 씨앗이 언젠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우뚝 서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서울대 노래모임 '메아리' 기획.

천사들이 꿈꾸는 세상(영화)



"스물 한 살 삶의 시작, 우린 사랑의 끝에 서 있었다." 마리와 이자, 그녀들의 스물 한 살의 청춘스케치. 부서질듯한 금발머리에 커다랗고 슬픈 눈을 가진 마리. 채워지지 않는 청춘의 허기는 그녀를 늘 외롭게 했다. 21살, 반복되는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그때 한 남자를 만났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에 환한 웃음을 가진 이자. 사람들은 커다란 배낭하나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웃음만큼 큰 꿈이 있다. 21살, 그녀는 늘 세상을 향해 꿈을 꾸었다. 98간느 영화제 공동여우주연상 수상작. 코아·아트홀에서. 29일 개봉.

워킹홀리데이 가상 시나리오

여행·아르바이트... 값싸게 이국체험



"다행히 일주일만에 양을 키우는 농장에서 연락이 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이나 임금체불로 일만 하고 오갈데 없이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보다 훨씬 행복한 경우이다."

졸업을 해도 웬만한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쉽게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고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 영어권에 위치한 호주는 시드니항과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워킹홀리데이. 젊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조건이다. 대학졸업반인 이양 또한 귀가 솔깃했으니. 무작정 워킹홀리데이 협회에 전화를 걸어 수속을 밟고 휴학을 했다. 떠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과 엄마에게 약간의 용돈을 받아 호주달러로 환전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혼자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울적해 있는데 마침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또다른 학생이 있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으랴. 호주에 도착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라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PICK-UP서비스를 신청한 그 학생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자리를 폈다. 먼저 왔다는 일본인 어학 연수자를 우연한 계기로 협회에서 만나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을 구한다. 당장 손에 남은 돈은 앞으로 쓰일 밥값으로도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다. 어학연수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이양. 협회에 도움을 청해 정보지에 구직공고를 내고 연락이 올 때까지 호주 곳곳을 살펴보고 잠시 여행을 떠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다행히 일주일만에 양을 키우는 농장에서 연락이 왔다. 숙소를 정리하고 배낭을 짊어진 이양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갈아탈 때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끊어지지 않았다. 물어 물어 도착한 농장에는 중년 부부와 딸이 살고 있었다. 딸이 톱할리 없는 그를, 이양은 사전과 회화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동양인을 집에 들여 놓는다면 여간 신기해하지 않던 가족은 그녀에게 농장을 소개시켜주고 기분을 자랑하기에 비뻤다.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에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가를 느낄 수 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가족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낯새와 농장의 규모에 혀를 내둘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또한 음식도 입에 맞지않아 어려웠지만 가족의 배려로 가끔 한국의 김치나 고추장을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해왔다. 비록 몸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잘 참아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이나 임금체불로 일만 하고 오갈데 없이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IMF는 이양을 계속 괴롭혔다. 부모님께 약간의 의지를 하며 용돈을 받아오던 것이 환율인상으로 버텨내기 힘들지경에 이르렀다. 6개월간의 연수와 실제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야 한다. 양영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달하나 천강에

캠퍼스 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여기 동국학원에는 아직도 캠퍼스 이기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경주캠퍼스에서 교육대학원의 여러 학과 전공개설을 요청하지는 십 여년이 넘는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에서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만 허용하다가 계속되는 요구에 사범계열인 수학교육학과와 가정교육학과만 교과과정을 개설하면서 그것도 현직교사만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경주캠퍼스의 교육대학원 교과전공 확대와 증원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 이유인 즉 수학교육전공과 가정교육전공의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과 교육학 강좌 개설의 어려움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학교육전공은 현직교사만 현재 38명이 교육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다.

교육대학원의 어느 학과든 해마다 20명씩 현직교사를 입학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가정교육전공은 여성교사인 점과 현재 중등학교에서 가정교과가 줄어든 학과적 특성으로 모집이 어렵기는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다. 비교사가 입학할 경우 교직과정의 개설문제는 지역적인 작은 문제일 뿐이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입학을 허용하고 경주캠퍼스에는 현직교사만으로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고서는 정원의 충원이 어렵다는 논리로 정원의 캠퍼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캠퍼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어교육전공이나 영어교육전공을 개설하여 서울캠퍼스와 같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면 이 지역 현직교사와 더불어 그 수요는 엄청날 것이다.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전원 서울캠퍼스 교수들(위원장 1명, 위원 7명)로 구성되어 있음에 경주캠퍼스의 입장이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경주캠퍼스는 지역대

학과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21세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년 전부터 교육대학원의 여러 학과 전공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중등교사를 매년 20명씩만 동국의 동문을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 2백명의 동문교사는 신입생 모집과 학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몇 십 억원의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경주캠퍼스의 교육대학원 학과개설에 따른 정원 및 실명의 이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학원의 정원은 동국의 양 캠퍼스 재학생을 근거로 인가된 것이며, 경주캠퍼스의 발전이 곧 동국학원의 발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국인들이 더 큰 동국의 발전을 위해 캠퍼스 이기주의라는 탐욕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기를 부처님께 빈다.



이 임 수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손재현무용단 창단공연 '넋의 소리'

“불심(佛心)을 발레로 승화시킨다”

불교포교 목적 ... 오는 3·4일 서울캠 예술극장에서

불심(佛心)을 발레로 승화시킨다? 쉽게 연상하기 힘들다. 다소 실험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공연은 다름 아닌 손재현무용단의 창단공연이다. 손재현(체육교육) 교수가 불교포교무용단을 창단해 오는 3, 4일 서울캠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다룬 이 공연의 제목은 '넋의 소리'. 김흥우(연극영화학)교수가 극본을 쓰고, 신영섭(연극영화학)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딸아이를 범종제작에 제물로 바치고 번뇌하는 어머니가 결국 불심에 귀의한다는 것이 이 극의 주된 내용이다. 본교에 무용과가 없는 상황에서 졸업생과 초청무용수 등으로 이뤄진 손재현무용단은 일반인들에게 불심에 귀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색다른 점은 발레뿐만 아니라 연극, 탈춤 등도 삼입된 무용극이라는 것이다. 이는 포교가 목적인 공연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무용의 신체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대사를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극영화학과·체육교육학과 학생, 문화예술대학원생 등이 연습에 참여했고, 이처럼 각기 다른 소속의 사람들로 구성된리자 연습은 대개 오후 8시에 시작해 밤12시, 1시에 끝난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말에는 하루종일 공연준비만 한다. 오늘도 이들은 본교 서울캠 체육관



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준비를 하고 있다.

지하 연습실에 모여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다. 손재현교수는 가톨릭선교무용단은 많은데 비해 불교포교무용단이 적은 현실이 안타까워 본교에 지난 91년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무용단을 창단할 것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IMF영향으로 후원금도 적어 이번 공연의 기획, 제작비도 개인적으로 준비했다는 손교수는 이러한 자금사정보다도 "현재 체육교육과에 무용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한명도 없어 포교무용단을 활성화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반인들이 공연에 많이 찾아와 불심에 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손교수는 앞으로 "크던 작던 1년에 한 번은 꼭 공연을 치를 것"이라고 다짐한다. 손재현무용단의 창단공연 '넋의 소리'는 본교공연에 이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매체비평

-연극편
개그콘서트

“어려운 시기일수록 요구되어지는 웃음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가슴아픈 웃음이다”



매체를 뛰어넘은 개그 무대가 펼쳐진다. 사진은 박경림의 토크쇼의 한 장면.

요즘 대학로에는 ‘개그 콘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연극과 라이브 콘서트 속에서 매일같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개그 콘서트’란 개그가 주가 되어 음악과 춤을 결합한 버라이어티 쇼를 말한다. 배우들의 순발력과 재치로 TV나 스크린을 통해서만 맛볼 수 없는 현장감과 관객과의 절묘한 호흡을 통해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창출해내는 ‘웃음의 무대’이다. 물론 현장감과 관객과의 호흡은 모든 무대 예술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개그 콘서트’에서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희극의 특성상 웃음의 순간을 위해 배우들의 절묘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웃음의 무대’는 여러 가지 형

태로서 오랜 시대에 걸쳐 존재해왔다. 그것은 사람들의 웃음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를 말해 준다. 유난히 힘겨운 시기일수록 그 열망은 더욱 커진다. 요즘 들어 ‘개그 콘서트’의 갑작스런 흥행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IMF로 인한 불안한 국내정세와 무너져 가는 서민들의 경제기반 등이 세기말의 병적 흥분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건전한 웃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빌린 웃음’이라도 애써 찾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학로에서 울려지고 있는 ‘개그 콘서트’ 중에서도 컬트 삼총사의 ‘포복절도’ 시리즈가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컬트 삼총사는 개그맨 출신의 가수로 ‘개그 콘서트’의 특징을 잘 살려 성공적

인 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 치뤄진 ‘포복절도’의 흥행으로 겨울에 ‘포복절도2’를 선보였고, 현재 ‘포복절도3’을 공연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곡을 곁들여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빠른 입담과 순발력 있는 재치로 연일 매진 사례를 이루었다. 한편에서는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보조좌석의 설치로 무리한 관객 입장을 유도한 것이나 공연 후 그들의 앨범판매에 치중하는 등 상업적인 측면이 너무 앞세워지지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주체의식이 있는 웃음과 라이브 음악 실력 등으로 그들에 대한 호평이 우세하다. 그들이 삼고 있는 주제는 청소년 가출문제와 국가권력 앞에 애소해질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처지에

다루는 것으로 관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요구되어지는 웃음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가슴아픈 웃음이다.

한국사회의 매우 경직된 웃음을 갖고 있다. 수줍음, 혹은 거만함에 의해 억눌린 웃음은 마음껏 발산할 기회가 드물다. ‘개그 콘서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한 공연 형태이다. 배우들은 매 공연마다 형성되는 불규칙한 3차 집단(관객의 특성을 파악)을 울라기는 순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경직된 마음을 한껏 열어 2시간만이라도 웃음 앞에 자유로워지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관객들이 웃음을 요구하는 한 ‘개그 콘서트’는 패자를 부르며 계속하여 질주할 것이다. 문화부

가자! 미지의 세계로

얼음골 동의제 허준·유의태 두 의성 살신성인의 뜻 새겨

전국에 많은 명소가 있지만 여름의 문턱에서 뇌리에 스치는 건 얼음골 ‘동의제(東醫祭)’의 현장이다. 밀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명으로 가는 차 중에 얼음골로 가는 버스(1시간에 한 대)를 타고 그곳에 당도하면 그렇게 제는 듯한 햇살도 맥을 못추는 듯 시원함만이 온몸을 감싼다. 얼음골은 분면 30°C를 오르내리는 폭염도 식혀주는 곳이다. 필자가 그곳에서 ‘동의제’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1997년, 그곳을 방문 후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은 얼음골로 달려간다.

얼음골은 천연기념물 제 2백24호로 지정되었다.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재약산(載藥山 또는 漈醫山, 1189미터) 중턱 6백미터 계곡에 위치하며 삼복에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녹아 김이 나는 ‘밀양의 신비’로 이름난 곳이다.

이 얼음골과 ‘동의보감’을 탄생시킨 허준(許俊)과는 밀접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허준은 1546년 김포에서 출생, 1615년 7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휴과 나무껍질, 풀잎 속에서 의학성분을 캐내고자 노심초사했던 한의학의 거두이다.

허준은 약재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환자를 돌보고 의술을 익히며 호구지책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유의태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경상도 출신인 그는 허준 보다 열댓살 연상인데 워낙 천부적인 의술을 타고나 채약은 물론 산약, 시맥, 탕약, 침술, 조약 등에 능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인 유도지마저 명의(名醫)의 맥을 전수치 않았던 그는 허준을 만나자 그의 열과 성에 압도되어 전수하게 된다. 당시만해도 중의학에 의존하여 인체해부학에 대한 임상자료는 전무한 상태였는데 유의태는 자신의 시신을 얼음골 어느 방곡(水谷)에서 해부하도록 유언을 하고 활복,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허준은 스승을 실험용으로 해부하면서 이를 ‘동의보감’에 활용, 완성하게 되니 이가 바로 동양권에서 최고의술서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얼음골은 이 두 의성(醫聖)의 숭소가 이어진 곳이다. 오백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한 여름에도 얼음을 느낄 수 있는 서늘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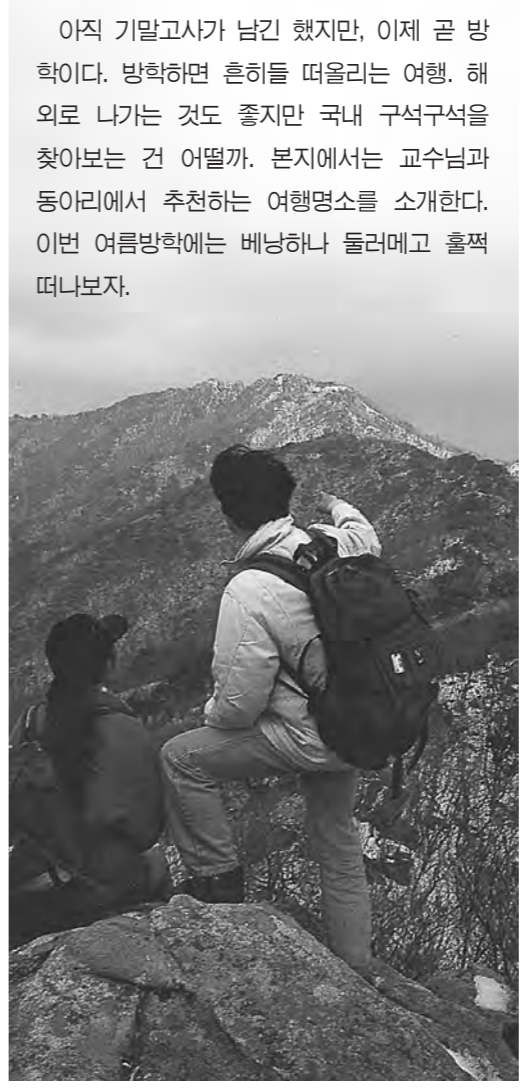
1997년 필자가 그곳에 갔을 때 얼음골 초입의 빙

곡사(氷谷寺)는 젊은 주지 성보원 스님에 의해 복원을 서두르고 있었다. 빙곡사로 앞았던 절은 천황사로 개명되었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었다. 스님은 이곳에 온 후 집을 설치고 꿈에 노인이 나타나 시달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생각던 끝에 연전부터 신체를 지냈고, 1996년부터는 규모를 확장하여 ‘동의제’라 하여 유·허 두 의성이 살신성인한 뜻이 온누리에 퍼지도록 했다는 것, 이후로 스님은 잠도 잘 자게 되고 불사도 원만히 풀리어 대웅전이 곧 완공된다는 것이다. 두분을 위한 추모·위령제는 나비춤과 바라춤에 범패까지 아울러 전통의례로 치루어졌고 여기에 ‘진흥무’까지 곁들여 공들인 것이었다. 더구나 3일에 걸쳐 유·허 의성의 후예들이 무료검진에 시술까지 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일석삼조의 여행이 되었다.

올해가 얼음골 동의제가 시작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필자가 벌써부터 얼음골로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다.

김홍우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제 기말고사가 남긴 했지만, 이제 곧 방학이다. 방학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여행.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본지에서는 교수님과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여행명소를 소개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배낭하나 둘러메고 훌쩍 떠나보자.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ANIMATION 정기상영회

서울캠 만화동아리 ‘만화열’에서 개최하는 애니메이션 상영회.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은하철도 999’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애니메이션과 최근 북고 바람을 일으키는 ‘8태권V’ 같은 우리 나라 고전 애니메이션 등이다. 특히 신세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에반겔리온’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모든 상영작에는 한글자막이 삽입된다.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본관 중강당에서.



서울캠 클래식 기타연주동아리 ‘현여울’에서 세 번째로 개장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약 10여명의 부원들이 평소 연습한 ‘에스터데이’나 ‘사랑의 콘체르토’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솔로, 듀엣, 트리오등의 형식으로 연주한다. 사람들하고 함께 연주하고 즐기므로써 클래식 기타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 오는 3일, 계산관 앞마당에서.

학교 밖에서

오태석연극제2(우리소리·색깔·몸짓)

극장 아롱구지의 개관 기념 공연. 고전으로 잘 알려진 ‘춘희의 처’와 ‘부지유천’ 두 작품을 현 시대에 걸맞게 전면 재각색하여 소극장 무대에 걸맞는 새로운 감성을 끌어내는 공연일 예정이다. 10월 3일까지. 극장 아롱구지(구 성좌소극장)에서. 문의는 745-3966

한겨레 (벤처 창업특강)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벤처 창업에 관한 특강. 대학생 및 벤처창업에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강. ‘벤처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벤처창업 성공사례’ ‘벤처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3가지 주제를 통해 벤처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예정이다. 오는 4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의는 7100-763

동강 한국의 ‘계림’ 수려한 자연경관 자랑



동강변 건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금강산 봄을 잠재울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 동강. “새벽에 자욱한 물안개가 걷히며 펼쳐지는 자연경관은 한국의 계림이라 불릴 정도로 일품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강변에,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해야 한다. 숙박은 문화마을 민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여름철에는 황새여울 자갈밭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으며 뒷정리만 잘 한다면 캠프피어도 가능하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동강탐험 연구회는 동강에서 보트를 타고 리프팅을 즐기라고 추천한다. 강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는 곳이나 절어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곡과 동굴을 볼 수 있다고.

서울에서 동강으로 가려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미탄을 경유하는 정선행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동강 근처 창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3시간반이 소요되며 동강의 강변 마을 마하본동까지 마을버스로 20분이 소요된다. 교통비는 고속버스의 경우 8천1백원이다. 단, 하루 네차례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고속버스의 환승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를 주의,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해야 한다.

숙박은 문화마을 민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여름철에는 황새여울 자갈밭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으며 뒷정리만 잘 한다면 캠프피어도 가능하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영남알프스 한국에서 만난 유럽의 알프스



경주캠 여행동아리 유스호스텔에서 추천하는 명산지는 영남 알프스 산맥이다. 영남 알프스 산맥이란 울산 울주구 삼복면과 경남 밀양군 산내면, 경북 청도군 문문면 등 3개 시도에 모여 있는 해발 1천m 이상의 7개 산군을 지칭한다. 가지산(해발 1,240m) 운문산(1,188m) 재약산(1,189m) 신불산(1,208m) 취사산(1,059m) 고현산(1,032m) 간월산(1,083m) 등이 그것으로 유럽의 알프스와 버금간다는 뜻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등산로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인터체인지로 나와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낙산해수욕장 볼거리·먹거리 많은 동해안 명소



서울캠내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가 추천하는 여행지 ‘낙산해수욕장’ 양양에서 6km떨어진 낙산해수욕장은 주위에 낙산사와 의상대를 비롯해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며 설악산을 옆에 둔 동해안의 명소이다. 예로부터 동해안에서 경포대와 쌍벽을 이루는 휴양지인 낙산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백백한 송림, 주위에 산재해있는 명찰과 고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낙산에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및 교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낙산학사가 있어 학생들이 하루 숙박료 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여행을 즐

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낙산사 앞 민박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낙산 비치호텔이주 좌우로는 식당과 민박집이 즐비하게 들어 서있어 숙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덧붙여 바람소리의 김영대(공화계열·2) 회장은 “낙산은 본교 학생들이 목욕가기 저렴하고 여러 가지 회등 별미를 값싸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는 방법은 동서울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에서 양양을 경유하는 속초행 버스 또는 양양행 버스를 타면 된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며 버스비는 1만5백원이다.

상봉 터미널에서 양양을 오가는 버스는 2시간 간격으로 있으며 직행의 경우 요금은 1만5백원 소요 시간은 5시간 40분이다. (원) izmir@cakra.dongguk.ac.kr

대둔산 화려한 암봉 금강·설악에 비유



본교 서울캠 ‘동국산악회’가 추천하는 명소 ‘대둔산’. ‘호남의 금강’ ‘작은 설악산’이라 불릴만큼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명산이다. 옛날 원효대사가 사흘을 둘러보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산이라 했고, 만해 한용운은 대둔산 대고사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승지를 말하지 말라 할 정도.

전북과 충북에 걸쳐있는 이곳은 해발 8백78m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등산로가 완주방면 3개, 논산방면 2개, 금산방면 1개가 있다. 특히 완주방면에서는 동심마루로 올라 금강구름다리, 삼선구름다

sadad@cakra.dongguk.ac.kr

메아리

도덕적 위험

▲완전경쟁시장하에 경제 주체들은 상품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이후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에서 헤어나오질 못한채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정부에게 이양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등에 업은 정부는 때로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보를 오·남용해 국가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게 하기도 한다. 12.12사태,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선거,

유신정권 등 어떻게 보면 지금의 IMF사태 하에 무수한 실업자가 생기게 한 외환위기에 시 정보공유화가 되지 못한채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만 주어진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경제학자 레이놀즈는 산업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사람의 비인간적 요소 즉 자연에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어떤 목적의식 아

래 얻어내는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며, 자본과 자연은 자본가에게 소유되지만 노동(력)만은 각자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노사분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IMF이후 2백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최소 1년내거리는 20년이 넘도록 일하다 하 루이침에 거리로 내몰린지 했수호 2년이 다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자들을

구한다는 명분아래 공·사기업의 인건비용, 공공근로실업대책, 보조금 지급 등 여타 많은 실직자 구제정책을 펴 왔지만 그 때마다 일과성 정책의 수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얼마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 일자리찾기 등을 또다시 벌이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실업률을 5.7%로 내다보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자는 1백 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구제방안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파위를 자랑하는 중앙권력은 도덕적 위험에 또다시 직면할 것이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소나기

도서관을 말한다



△난 정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 자리 좀 늘려줘.
 △상록원보다 도서관이 급했다.
 △도서관에 책 좀 놔라. 읽을 책이 없다.
 △해화관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만들자!
 △핸드폰, 휴대폰은 도서관하고 안 어울림.
 △도서관 열람실에서 PCS 좀 자제해줄걸... 최소한 매너있는 동국인이려면.
 △도서관과 C·C는 정말 짜증 도서관과 미니스크트는 엉망!
 △도서관 자리 맡아 놓고 오지도 않는 사람 핸드캡 적용합시다.
 △불교 서적 만큼만 다른 책들이 있었다면 제 2의 국립 도서관?
 △제2도서관건립 정말 하는건가요?
 △19C 건물 20C 학생이 어우러진 곳 △도서관에는 책이 있다.
 도서관에는 열람실도 있다.
 도서관에는 멀티미디어실도 있다.
 그래도 우리 도서관은 낡았다!!!
 △시험기간때마다 자리 전쟁! 이젠 그만-
 △빈 좌석에 책 한권만... 무늬만 학생 아닌가요?
 △도서관은 시정됐다.
 △도서관은 독서실이다.
 △도서관에선 제발 책으로 진리탐구좀 하자구요.
 △도서관에서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다 열람실로...
 △도서관은 학교의 얼굴
 △공부할 밥만 있으면 도서관 좁은게 무슨 상관...



지난 12일 히말라야 칸첸중가봉 정상에 오른 박영석(체교91출) 동문의 모습.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의 모습이 늠름하기만 하다. 사진제공=1백주년기념사업본부

임석대동제 '술축제' 탈피해야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 대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럴즈음 대학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대동제가 시작되었다.
 우선 대학의 대동제라면 빼놓을 수 없는 술문화에 조금의 변화가 보인 것 같다. 동국인의 비주류 문화를 내걸고 진정한 대학인의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인지 작년보다 주막수가 줄었다는 것이 형식적이나마 그런 구호를 실추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술마시는 일 아니면 할 것이 없다는 대동제에 대한 틀에 박힌 이미지는 벗어나기 힘든 것 같다. 밤이 되면 더욱 현란해지는 주막거리의 여기저기 취한 사람들이 캠퍼스의 술에 빠져들어가 있다. 대동제 문화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낸다는 식의 이런 모습은 새내기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줄 뿐이다. 학생들은 대동제때만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길 원한다.
 그간의 행사들은 단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좀처럼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녹야원에서 행해지는 행사들도 그저 일정한 채우기 위한 것인지, 너무 공연에만 치우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아니었으면 한다. 단지 대동제를 무로써 시간 보내기 식이나 아예 짧은 방화처럼 왜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또 새로운 새내기들이 보는 대학의 대동제는 술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흘러가는 공연위주가 아닌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정수현 (의과대 간호학과)

동대신문 '한총련 기획광고' 유감

5월 24일자 동대신문은 전면에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기획광고를 실었다.
 주체적 법인격이 있는 신문으로서 자신의 논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표현이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의든 타의든 동대신문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기획 광고는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대인들이 언제 한총련에 대한 총력적인 지지를 보였는가? 우리 동대인이 언제 한총련을 탄압한다고 정부를 비난하였는가? 학생회가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입장 또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한총련에 대한 입장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다. 정권의 탄압이든 아니든 탈퇴한 학교가 많으며, 많은 학생들이 그 논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총련이 무조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 강령과 행동과정에서 국가 전복적 성격이 아주 없다면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동대신문은 그런 문제점은 단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 동대신문이 진정 공정하고 그 기사가

부끄럽지 않고, 기성신문을 담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상현 (사범대 국어교육과)

신문사 입장 표현했을 뿐

주체적 법인격을 가진 동대신문사라면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동대신문은 학보이다. 동대신문이 학생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것이라는 주장은 김상현님의 주관적 판단이다.
 '우리 동대인들이 언제 한총련에 대한 총력적인 지지를 보였는가?' 라는 식의 비판은 동대신문이 동국대 학생 전체가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면 타당하다. 동대신문사 자체의 주장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건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탄압이든 아니든' 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많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주체적 법인격을 가진 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억압했다면 그 뒤의 결과물은 자발적 의사로 한 것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lala98@hanimail.net



동약광장

목명글
 축하합니다
 △윤영아! 생일 축하해. 주희랑 너랑 나랑 셋이서 잘 살아보자. -한송 ^^
 △민환이 오빠, 경덕야. 생일 축하한다. -독문과 97이
 △혜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도 행복한 날이 계속되길 빈다. -오빠가
 △우승을 축하합니다. 동대 야구 만세! 우리도 곧 우승합니다. -아미츄어 야구회
수고 하셨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켰던 문과대 학우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싸랑하는 우리 인문학부 후배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싸랑한다. -어는 9601
 △천막 농성단 친구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과대 학자주체

알립니다
 △사회 과학대 대의원장 용대 오빠를 사랑하는 모임이 발족합니다. 회장 : 고XX, 부회장 : 최XX, 회계 : 미묘의 여인 김XX
그리고...
 △진석이 형! 휴학하지마요. 제가 학교 다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누군졸일조
 △윤호야, 경식이 스타 한관 때리지. 너들 VS 나, 성호 연라해. 종강전에. 끝내 주마. △도대체 총학 기준잡아 동아리 연합회 등등이 왜 한총련에 매달리는가? 한총련 사수나 하라고 총학 선거했던 말인가? 왜 공약엔 그런 내용 하나도 없더니. 있었으면 부결했을텐데. 선거 다시해라!!! -東國人
 △담배 날개로도 빠시다. △경찰 행정 제 33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33기 멋져! 짱!

모니터링

제 1274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안제시 없이 문제점 나열에 그쳐”

동대신문은 명확한 자기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학내의 언론사로서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권 언론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사의 주장을 펼쳐 학내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1274호를 보면, 1면에 경주캠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어 계열별 모집단위 반대 등의 안전을 인준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회측과 학교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나열만 하고 있다. 그리고 '본교의 실정에 맞게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선후배, 동기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사에서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주제기획면을 보면 학내공간의 현재 문제점은 잘 지적해 주고 있지만, 과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선후배, 동기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사에서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주제기획면을 보면 학내공간의 현재 문제점은 잘 지적해 주고 있지만, 과

도한 편입생의 입학으로 학생수가 늘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결책은 거의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추상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하지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제기획으로 특별하게 다뤘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학신문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수 있다. 동대신문도 그런 자유로운 논조로 사회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기자정신의 정론지로 일어서길 바란다. 이종현(경상대 회계학부)

학우들이 느끼는 실제적 문제에 관심가져야

이번호 동대신문은 1면의 학생총회 성사에 대한 기사부터 학내공간문제와 대동제 기사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까지의 신문보다 훨씬 나아갔다고 본다. 그러나 기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신문인 것 같다.
 먼저 "경주캠, '5·20 학생총회' 성사"라는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아 1면에 내세워 비중을 높인 것은 당연하나 반면에 계열별 모집단위나 성폭력 학칙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오히려 단편적인 상황 설명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학내자치공간을 진단한다"라는 기사 역시 두면에 걸친 장대한 기획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진 문제점의 나열에만 그칠뿐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흔적을 보지 못한다.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혹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 운운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특히 생활면의 '의학상식'이나 학술면의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학우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 솔직히 지면이 아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필자가 바뀐 '동국만평'이나 '동학이'의 경우 깔끔한

그림실력은 보기가 좋으나 주제적식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대학신문은 대학인의 대변자로서 누구보다도 대학인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짚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문의 경우는 정작 시원스럽게 짚어야 할 부분은 결돈체, 그것을 보상하려는 듯 엉뚱한 부분만 박박 긁고 있다. 동대신문이 대학신문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심각한 모색과 더욱 투철한 붓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종희(인문과학대 한문학과)

“자치공간 없다” 과·학부 정체성 구현하기 어려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는 정말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자치공간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캠 정보문화관이 문을 열게 됨에 따라, 97년도부터 정보산업대학 -참고로 현재 정보산업대학은 학부로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로, 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전공' '산업공학전공' '정보시스템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설되면서부터

문제시되었던 자치공간문제자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방화중에 자치공간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며 현재도 학생회실이 비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모임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공간 확보를 아예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단과대 학생회실은 맨 아래층, 통신이 두절된

구석진 곳에 있으며, 학부 또는 전공학회실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의 이유로 또는 여타의 이유로 제대로 간판조차 내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며칠 전 정보산업대에서 대동제 기간동안 설문조사를 했다. 그 중 '정보산업대 학생회실을 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대다수가 '오늘 처음 알았다' 또는 '알고는 있었으나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학생회실 위치 조건이 좋지 않고, 또한 잦은 학제 개편으로 인해 자신의 과, 학부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김근주 (정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dgpress
 천리안 PC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까스(1300) 닭도리탕(1500)
화	불고기백반(1500) 부추비빔밥(1300)
수	잡채밥(1300) 미트볼덮밥(1300)
목	제육덮밥(1500) 햄볶음밥(1300)
금	짜장면밥(1300) 오징어볶음(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미트볼탕수(1500) 제육김치찌개(1300) 참치볶음밥(1300) 미트볼탕수(1500)
화	오징어채볶음(1300) 소고기버섯찌개(1500) 콜뱅이소면무침(1500) 오징어채볶음(1300)
수	제육볶음(1500) 닭개장(1300) 맛살이채볶음(1300) 제육볶음(1500)
목	순살돈까스(1300) 비빔밥(1300) 고구마별미밥(1300) 순살돈까스(1300)
금	새우볶음밥(1300) 만두육개장(1300) 콩나물무침(1300) 새우볶음밥(13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유두사시미국(1300) 불고기덮밥(1700)
화	대구매운탕(1300) 잡채덮밥(1800)
수	육개장(1300) 물냉면/수박(1800)
목	제육두부찌개(1300) 합박스테크(1800)
금	오징어무국(1300) 전주비빔밥(1800)
토	만두국(1300) 뉴지볶음덮밥(1800)
일	콩나물해장국(1300) 햄이채볶음밥(1600)

(단위:원)